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프랑스혁명기

질리앵 레몽의 인종주의

-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과 노예제 폐지론 -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민 정 기

프랑스혁명기

쥘리앵 레몽의 인종주의

-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과 노예제 폐지론 -

지도교수 최 갑 수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민 정 기

민정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년 8월

위 원 장 한 정 숙 (인)

부위원장 최 갑 수 (인)

위 원 주 경 철 (인)

국문초록

본고는 프랑스 식민지 생도맹그(Saint-Domingue)의 자유유색인 유산가 쥘리앵 레몽(Julien Raimond, 1744-1801)이 프랑스혁명기에 전개했던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과 노예제폐지론을 분석하고 그 기저에 있었던 그의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찰한다. 백인 아버지와 몰라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의 법에 따라 출생 때부터 자유인으로 인정되었고 18세기 말 생도맹그에는 그와 같은 자유유색인(gens de couleur libres)들이 다수 존재했다. 자유유색인들의 대표였던 레몽은 자유유색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차별에 반발하여 참정권 운동을 전개했으나 흑인 노예의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는 자유유색인과 흑인은 “빛과 어둠이 나뉘듯” 엄격히 구분된다고 믿었고 흑인들의 열등함을 전제했다. 자신 스스로가 인종적 위계질서 하에서 고통당했던 자유유색인 레몽이 왜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에 충실했던 것일까?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고는 1789년에서 1797년 사이 레몽의 글과 활동을 검토하여 그의 독특한 인종주의적 사고를 분석하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찾고자 한다.

자유유색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 레몽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1760년대에 생도맹그로 유입된 다수의 가난한 백인들이 부유한 자유유색인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꼈고 식민당국에 인종차별적 법률의 제정을 촉구한 결과로 인종적 계서제가 강화되었다고 해석했다. 그의 분석은 당시 생도맹그 사회 내 자유유색인과 백인 간의 경제적 긴장을 잘 보여주나 인종적 계서제의 근본적 원인인 노예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의 분석이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표면에 드러나는 경제적 대립관계만을 지적했던 것은 그가 유색인으로서 인종적 계서제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노예소유주로서 노예제의 수혜자였기 때문이었다. 자유유색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적 편견을 비판하면서도 흑인들의 노예노동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했던 레몽의 사고방식은 이후 그의 여러 활동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레몽은 1782년부터 적극적으로 자유유색인 참정권을 주장했고 1784년에는 프랑스로 건너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책자들을 출판했다. 1789년에 혁명이 발발하자 그는 자유유색인 참정권의 정당성을 혁명 이념과 결합시켰다. 그는 프랑스 본국에서 권리의 평등을 이뤄낸 혁명이 식민지에서는 피부색의 편견에 가로막혀 본국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이는 혁명 이념의 인종적 경계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였다. 그의 주장은 당시 입법회의의 주도세력이었던 브리소파에게 영향을 미쳤고, 모든 자유유색인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1792년 4월 4일의 법령이 통과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가 주장했던 것은 모든 인종의 평등한 정치참여가 아니라 오로지 자유유색인과 백인만의 평등이었다. 그는 자유유색인 참정권의 논거로서 자유유색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므로 양자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인종적 편견을 내세웠던 것이다.

자유유색인의 참정권이 인정된 후 프랑스 정부는 노예반란을 진압하고 식민지의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레몽은 점진적 노예제폐지론을 제시했다. 그는 노예들이 자신의 몸값의 6분의 1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일주일 중 1일을 자유일로 누릴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반복되어 노예의 자유일이 일주일 중 2일, 3일로 늘어나고 일주일 전체가 자유일이 되면 노예가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외관상 노예제폐지론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혁명을 노예들에게까지 확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농장주로서의 자기이익에 충실하려 했던 결과에 가까웠다. 레몽은 파괴된 대농장 체제의 부활을 원했고, 노예제가 와해되어 노예들이 사실상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그는 노예들을 계속하여 대농장에 붙들어둘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노예들은 오로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취득한 금전으로만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되살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렇게 되면 노예들은 노동하지 않고는 자유를 얻을

수 없으므로 노동을 자유의 수단으로 여길 것이며, 완전한 자유를 얻을 무렵이면 노동을 내면화한 상태에 이르러 자유인이 되고나서도 기꺼이 농업노동자로서 과거 주인의 대농장에서 일하리라는 것이 그의 예측이었다.

레몽의 구상은 흑인에 대한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을 전제하고 있었고 그것을 인종문제에 대한 당대의 견해들, 특히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의 그것들과 견주어보면 그것이 계몽사상가들의 주장에 맞닿아있으면서도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로 레몽의 인종주의적 사고는 백인들이 생물학적 요소를 근거로 자유유색인을 차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그 자신 역시 생물학적 요소를 근거로 자유유색인과 흑인을 구분하는 이중성을 특징으로 했다. 둘째로 레몽은 타락한 상태의 흑인들을 노동으로 교화시켜 자유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점에서 흑인들의 개선가능성 및 문명화 담론을 언급했던 계몽사상가들과 유사했다. 그러나 계몽사상가들은 문명화된 백인만을 개선의 모범으로 제시했던 반면 레몽은 모범이 되는 인간의 범위를 자유유색인으로까지 확장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들과 달랐다. 레몽의 인종주의적 사고는 자유유색인 유산가 계급이 대두하여 기존의 피부색의 위계질서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던 식민지 특유의 산물이었다. 혁명기의 생도맹그는 “계급과 인종의 교차를 연구하는 실험실”과도 같았고 레몽은 바로 그 교차점에 있었다. 자유유색인으로서 백인과 흑인의 경계에, 중소규모의 유산가로서 최상층 유산가와 하층민의 경계에서 있었던 그는 유동적이었던 당시의 인종, 인종주의 개념이 계급이라는 범주와 뒤엉켜있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인물이었다.

주요어 : 쥘리앵 레몽, 인종주의, 노예제, 생도맹그, 프랑스혁명, 아이티혁명

학 번 : 2016-20068

목 차

I. 서 론	1
II. 18세기 말의 생도맹그 사회와 레몽	6
1. 자유유색인들의 경제적 성장	6
2. 인종적 계서제 강화와 자유유색인 차별	11
III.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1782-1792)	16
1. 자유유색인의 미덕	16
2. 혁명과의 결합	18
3. 자유유색인과 흑인의 구분	22
IV. 레몽의 노예제 폐지론(1792-1801)	28
1. 대농장 체제 재건 - 노예에서 농업노동자로	28
2. 레몽의 인종주의	35
V. 결 론	40
참고문헌	42
Résumé	49

I. 서 론

1795년 11월, 프랑스 총재정부는 생도맹그(Saint-Domingue) 식민지 태생의 자유유색인 율리앵 레몽(Julien Raimond, 1744-1801)을 생도맹그의 판무관(commissaire civil)들 중 한 명으로 임명했다.¹⁾ 이는 비(非)백인이 식민지 고위 관료에 임명된 최초의 사례였다. 레몽이 백인이 아니었는데도 판무관으로 임명되었던 것은 노예해방 이후 생도맹그의 경제 재건에 대한 그의 견해 때문이었다.²⁾ 그는 생도맹그를 수익성 있는 프랑스 식민지로 유지하기 위해 1791년의 노예반란으로 파괴된 대농장(plantation) 체제를 복원해야 하며 흑인들은 해방된다 할지라도 프랑스에 자유를 빚지고 있는 자들이므로 과거 주인의 대농장에서 노동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식민지의 인종적 계서제 하에서 고통당했던 자유유색인 레몽이 왜 인종적 계서제를 옹호하며 흑인을 억압하는 주장을 펼쳤던 것이었을까?

흑인 노예에 대한 억압에 기반을 둔 생도맹그 사회에서 그는 흑인 혈통을 지닌 자유유색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로부터 배척당했고 이에 반발하여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노예 노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농장주였고 자신이 소유한 흑인 노예들을 자유유색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취급했다. 흑인 노예들은 자유유색인과는 달리 유럽인의 혈통을 지니지도 않았고, 설령 해방된다고 할지라도 이미 오랜 세월 타락한 상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미덕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사고방식은 백인과 흑인 사이의 중간적 집단인 자유유색인들이 식민지 사회에서 점했던 특수한 위치, 그들

1) 자유유색인(gens de couleur libres)은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의 혈통을 모두 지닌, 자유인 신분의 혼혈인들이었다. 1685년 제정된 프랑스의 흑인법은 미혼 백인 남성이 자신 소유의 여성 노예와 내연관계를 맺고 자식을 얻었을 경우 그는 여성 노예와 결혼할 것이며 이로써 여성 노예는 해방되고 자식들은 자유인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Le Code noir, 1685, Article IX; 한편 판무관은 1791년부터 프랑스 정부가 혁명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식민지에 파견한 최고위 행정관이었다.

2) John Garrigus, "Opportunist or Patriot? Julien Raimond(1744-1801) and the Haitian Revolution," *Slavery and Abolition* vol. 28 no. 1 (2007), p. 11.

이 프랑스혁명기에 당면했던 현실과 그 대응과정에서 보였던 모순적 일면을 드러낸다.

그러나 레몽이라는 인물의 함의는 본격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그의 이름은 아이티 혁명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단편적으로만 언급되었다. 아이티인이 기록한 최초의 아이티민족사로 일컬어지는 마디우(Thomas Madiou, 1814-1884)의 『아이티의 역사』(Histoire d'Haïti)는 레몽이 자유유색인의 대표이자 관무관으로 활동했던 것을 언급했으나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 등 흑인 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했고 레몽에게는 주목하지 않았다.³⁾ 아이티 역사가이자 정치가였던 아르두앵(Beaubrun Ardouin, 1796-1865)은 『아이티사연구』(Étude sur l'histoire d'Haïti)에서 레몽을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었고 그마저도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그는 레몽이 백인과 마찬가지로 노예소유주였고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따랐으며 정치적 식견도 모자랐다고 평가했다.⁴⁾ 영미권 아이티 혁명 연구의 선구자인 제임스(C. L. R. James) 또한 『블랙자코뱅』(The Black Jacobins)에서 레몽에 대해 “생도맹그 역사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 중 하나”라는 짤막한 평만을 남겼다.⁵⁾ 레몽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것은 그가 속한 자유유색인 집단 자체가 역사가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백인들의 압제와 흑인 노예들의 반란이라는 양극에 초점이 맞춰졌기에 중간적 집단이었던 자유유색인은 우선적인 관심을 받기가 어려웠다.

레몽 개인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였다. 쿡(Mercer Cook)은 사료에 입각하여 그의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을 설명했고, 생도맹그에 관무관으로 파견된 이후 대농장 체제를 복원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를 다루면서 비록 레몽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의 성취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⁶⁾ 드비앙(Gabriel Debien)은 혁

3) Thomas Madiou, *Histoire d'Haïti* tome. 1, Port-au-Prince: Imprimerie de J. Courtois, 1847.

4) Beaubrun Ardouin, *Étude sur l'histoire d'Haïti* tome. 2 et 3, Paris: Dezobry et E. Magdeleine, Lib.-éditeurs, 1853.

5) C. L. R. James,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1938, 우태정 역, 『블랙자코뱅』, 서울: 펄맥, 2007, p. 236.

명 발발 직후 자유유색인들이 파리에 모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국민의회의 의석을 요구하였던 것에 주목하면서 레몽이 그 활동의 지도자로서 활동했다는 점을 언급했다.⁷⁾ 한편 느무르(Luc Nemours)는 레몽의 정치적 활동보다는 그의 재산 축적에 관심을 갖고 당시의 공증기록을 이용해 그와 그의 부모가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를 분석했다.⁸⁾ 이러한 20세기 중반의 연구들은 레몽을 최초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의 활동 전체를 아우른다기보다는 특정 면모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레몽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20세기 후반에는 개리거스(John Garrigus)가 생도맹그 자유유색인들의 경제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대표적인 자유유색인 농장주였던 레몽이 인디고 밀수를 통해 부를 쌓았음을 보여주었다.⁹⁾ 이후 2000년대에 들어 개리거스와 고티에(Florence Gauthier)는 레몽의 활동을 단순히 나열했던 이전의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레몽이 대서양 양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적 사건 속에서 갖는 함의를 제시했다. 이들은 백인, 흑인과는 구분되는 자유유색인이라는 집단이 혁명기에 보여주었던 정치적 수사와 활동에 주목하였고 레몽과 자유유색인들이 혁명기의 중요 문제, 특히 식민지인들의 시민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음을 보여주었다. 개리거스는 레몽의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이 비록 노예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카리브 해 태생 민중의 시민권 - 그들의 조상이나 인종적 기원에 관계없이 - 을 주장한 최초의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고 이것이 독립국가 아이

6) Mercer Cook, "Julien Raimond," *The Journal of Negro History* vol. 26 no. 2 (Apr., 1941).

7) Gabriel Debien, "Gens de couleur libres et colons de Saint-Domingue devant la Constituante(1789-mars 1790)," *Revue d'histoire de l'Amérique française* vol. 4 n° 2 (1950).

8) Luc Nemours, "Julien Raimond le chef des gens de couleur et sa famill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123 (Juillet-Septembre 1951).

9) John Garrigus, "Blue and Brown: Contraband Indigo and the Rise of a Free Colored Planter Class in French Saint-Domingue," *The Americas* vol. 50 no. 2 (Oct., 1993); Garrigus, "Colour, Class and Identity on the Eve of the Haitian Revolution: Saint-Domingue's Free Coloured Elite as Colons américains," *Slavery & Abolition* vol. 17 no. 1 (1996).

티의 건국에 영감을 주었다고 보았다.¹⁰⁾ 또한 고티에는 프랑스 혁명 발발 이후 레몽을 필두로 한 자유유색인들이 식민지의 백인들이야말로 “피부색의 특권계급(L'aristocratie de l'épiderme)”이라고 비판하며 혁명적 수사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전유했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¹¹⁾ 이를 통해 이들은 자유유색인들을 정치적 주체로 복원했고, 연구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혁명의 전체상을 그려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자유유색인들의 활동이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사와 활동의 기저에 있었던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의 문제는 아직까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중성이었다. 레몽과 자유유색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식민지 백인들이 “피부색의 편견(préjugé du couleur)”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유색인들 역시 흑인들에 대한 또 다른 피부색의 편견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인종적 위계질서를 폐기하려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위계의 구분선을 이동시키려고 시도했다. 기존의 구분선은 백인과 백인이 아닌 모든 이들을 갈라놓았으나 레몽은 자유유색인을 백인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키고 흑인을 최하위에 두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억압받던 자유유색인들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여전히 피부색의 편견을 전제하고 인종이라는 범주에 의지해 인간 집단 간의 불평등한 관계 설정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레몽은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을 보였던 이중적 인물이었다.

그의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은 19세기에 사회적 다윈주의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자연과학의 외피를 쓰고 전성기를 누렸던 생물학적 인종주의(racisme biologique)와는 구분된다. 생물학적 인종주의는 인종의 생물학적 본성과 백인의 내재적 우월성을 주장하며 그것이 후천적으로 변하지

10) Garrigus, *Before Haiti: Race and Citizenship in French Saint-Domingu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Garrigus, “Julien Raimond(1744–1801): Planter, Revolutionary, and Free Man of Color in Saint-Domingue,” in *The Human Tradition in the Atlantic World, 1500–1850*, edited by Karen Racine and Beatriz G. Mamigonian,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10.

11) Florence Gauthier, *L'aristocratie de l'épiderme: Le combat de la Société des Citoyens de Couleur, 1789–1791*, Paris: CNRS, 2007.

않음을 전제했다.¹²⁾ 반면 레몽이 사용했던 인종 개념은 훨씬 더 유동적이고 모호했다. 그는 생물학적 특징을 언급하면서도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인종 집단 간의 계급적 격차를 인종적 특질 그 자체로 빈번히 치환시켰고, 이는 인종이라는 범주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계급이라는 범주와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레몽의 사고방식을 19세기 인종주의의 맥락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스튜어트 홀 등이 제기했던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종주의들(racisms)”의 한 형태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¹³⁾

본고는 1789년에서 1797년 사이 레몽이 출판한 청원서, 서신, 소책자 등을 분석하여 프랑스혁명 당시 한 자유유색인 유산가의 독특한 인종주의적 사고방식을 파악하고 그것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18세기 말의 생도맹그 사회를 개괄하고 그 속에서 레몽의 초기 생애를 살펴보며 유산가이자 자유유색인이라는 그의 이중적 정체성을 검토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혁명기에 그가 전개했던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을, IV장에서는 생도맹그의 노예반란을 해결하고 식민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그가 제기했던 점진적 노예제폐지론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고는 18세기 계몽사상이라는 사상적 뿌리를 지닌 인종주의가 식민지라는 환경에서 변화해가는 독특한 단면을 보여주는 인물로 레몽을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또한 그를 통해 자유유색인이라는 집단이 보여준 인종과 노예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흑인과 백인의 양극화된 대립에 치중했던 기존의 연구를 넘어 혁명기의 다양한 사회집단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오늘날의 혁명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David Theo Goldberg, “Introduction” in *Anatomy of Racism*, edited by Goldber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pp. xi-xiii.

13) 인종주의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19세기 후반에 득세한 소위 “과학적”인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지칭하나 본고에서는 인종주의들(racisms)의 다면적인 역사적 형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근래의 견해를 참고하여 인종주의를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Goldberg, *Anatomy*, pp. xi-xxiii; Fazal Rizvi, “Stuart Hall on Racism and Importance of Diasporic Thinking,”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vol. 35 no. 2 (2015), p. 268; 국내에서도 인종주의를 생물학적인 것에 한정시키게 되면 그것은 역사적 현상을 설명하는 일반적 개념으로서 한계를 갖게 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강철구, 「서론」, 한국서양사학회 편, 『서양문명과 인종주의』, 서울: 지식산업사, 2002, p. 37.

II. 18세기 말의 생도맹그 사회와 레몽

1. 자유유색인의 경제적 성장

18세기 말 생도맹그는 대농장에서 생산된 환금작물을 수출하여 당시 대서양 최고의 수익성을 올리고 있었던 프랑스 식민지였다. 1492년 콜럼버스는 그의 항해 과정에서 카리브 해의 한 섬에 도달하여 그 섬에 에스파놀라(La Española)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이후로 에스파냐인들이 섬의 남동쪽 해안에 정착하여 산토도밍고(Santo Domingo)라는 이름의 식민지를 형성했다. 산토도밍고는 에스파냐가 건설한 최초의 아메리카 식민도시들 중 하나였으나, 이후 에스파냐가 남미 내륙에 침투하여 광대한 영역을 정복하게 되면서 그 중요성을 상실했고 중간 기착지로 변모했다. 프랑스의 해적들은 에스파놀라 섬에 드나드는 선박들을 빈번히 약탈했다. 섬의 서부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에스파냐 정부는 서부의 에스파냐 정착촌들을 보호해주지 못했고, 프랑스인들이 서부에 정착하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 결국 1697년에 에스파냐는 공식적으로 섬의 서부를 프랑스에게 할양했고, 이 지역은 생도맹그라는 이름의 프랑스 식민지가 되었다.¹⁴⁾

생도맹그의 대표적인 작물은 설탕이었다. 대농장에서 생산된 설탕은 유럽으로 수출되어 프랑스에 막대한 수입을 안겨주었다. 설탕 생산에는 사탕수수 수확과 정제라는 노동집약적인 과정이 요구되었고 이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생도맹그의 농장주들은 많은 수의 흑인 노예들을 사들였다. 18세기 내내 대농장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많은 흑인들이 생도맹그로 유입되었고 흑인 인구는 백인 인구를 압도했다. 18세기 중반 생도맹그의 노예 인구는 15만 명이었던 반면 백인은 1만4천 명 가량이었다.¹⁵⁾ 18세기 말에는 인구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졌다. 프랑스 본국에서

14) Laurent Dubois, *Haiti: The Aftershocks of History*, New York: Picador, 2012, pp. 17-18.

15) 로런트 듀보이스, 박윤덕 역, 『아이티혁명사』, 서울: 삼천리, 2014, p. 43.

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에 생도맹그의 노예는 46만5천 명에 달했던 반면 백인은 3만1천 명, 자유유색인은 2만9천 명이였다. 농장주들은 소유노예 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노예 수를 줄여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실제 노예 인구는 5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⁶⁾

쥘리앵 레몽은 이처럼 심각한 인구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18세기의 생도맹그에서 태어났다. 1744년 생도맹그 남부 배네(Bainet) 교구의 자유유색인 유산가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가족의 부를 물려받아 젊은 시절부터 유산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를 살펴보기 전에, 그에게 부와 이재(理財)를 물려준 그의 아버지의 삶을 보는 작업은 유산가로서의 레몽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버지 피에르 레몽(Pierre Raymond, 1689-1772)은 프랑스 남서부 생세베르(Saint-Sever) 출신 날품팔이 농민이었다. 그는 1707년에 왕립생도맹그회사(Compagnie royale de Saint-Domingue)¹⁷⁾의 식민지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배네에 정착했다. 1726년 아버지 레몽은 백인 농장주의 딸인 자유유색인 베가스(Marie Begasse)와 결혼했다. 이는 당시 생도맹그에서 드물지 않았던 백인 남성과 자유유색인 여성의 인종 간 결혼(mariages mixtes)의 전형이었다. 인종 간 결혼은 일차적으로 18세기 초반 생도맹그 내 백인 여성의 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지만 백인 남성들이 이미 식민지에 경제적 기반을 지닌 자유유색인 가문과의 통혼관계를 선호한 결과이기도 했다.¹⁸⁾ 아버지 레몽 역시 처가의 지원으로 1737년 배네에 농장을

16) *Ibid.*, pp. 43, 58.

17) 생도맹그는 북부, 서부, 남부의 세 지역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회사는 남부에 대한 프랑스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고자 만들어졌고 1698년에 프랑스 왕실로부터 특허장을 받았다. Nemours, “Julien Raimond,” pp. 257-258.

18) 백인 남성들이 무일푼인 것은 아니었으나 자유유색인 신부가 가져오는 지참금은 그들의 재산보다 훨씬 컸다. 또한 그들은 자유유색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검약하고 집안일, 농장관리에 능하여 빠르게 돈을 모은다고 믿었다. 인종 간 결혼은 자유유색인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했던 남부에서 성행했다. 18세기 생도맹그의 전체 결혼 중 인종 간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부에서 17%, 북부의 대도시 르캅에서 11%, 서부에 위치한 식민지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7% 가량이였다. Dominique Rogers, “De l’origine du préjugé de couleur en Haïti,” *Outre-mers* vol. 90 n° 340 (2003), p. 92.

소유할 수 있었다.¹⁹⁾ 1750년대에 배네에 가뭄이 들자 아버지 레몽은 이웃한 아캥(Aquin)으로 이주했다. 그는 아캥에서 황폐한 농장을 헐값에 사들인 뒤 그것을 보수하여 가치를 높였고 인디고를 재배하여 부를 축적했다. 1772년 사망할 당시 그는 115명의 노예와 9채의 건물이 딸린 인디고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²⁰⁾

레몽 부부의 아홉 번째 자식 율리앵 레몽은 유년기에 프랑스로 건너가 툴루즈에서 교육을 받았고 1763년 생도맹그로 돌아와 아버지의 인디고 농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경력을 시작했다.²¹⁾ 레몽은 아버지의 방식을 본떠 재산을 불려나갔다. 아버지의 농장에서 얻은 인디고 재배, 가공 경험은 자신의 농장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²²⁾ 1773년에 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인근의 황폐한 농장을 구매하여 그 곳에 인디고를 재배했고, 1780년대에는 그로부터 많은 수입을 얻었다. 그는 부유한 신부와 결혼했다는 점에서도 아버지를 닮았다. 1771년 사촌 뱅상(Marie Marthe Vincent)과의 결혼, 1782년 자유유색인 과부 다마르(Françoise Dasmard)와의 재혼에서 부인들이 가져온 지참금으로 그의 재산은 더욱 증가했다.²³⁾ 레몽의 재산은 1782년 20만2천 리브르에 이르렀다.²⁴⁾

레몽은 생도맹그 남부의 자유유색인들이 18세기 중후반의 경제적 상

19) 아버지 레몽은 6천 리브르의 지참금을 지녔지만 마리 베가스는 그보다 훨씬 많은 1만5천 리브르의 지참금을 가져왔다. Nemours, “Julien Raimond,” pp. 258-259.

20) Garrigus, “Blue and Brown,” p. 248.

21) Archives nationales d’outre-mer, depot des papiers publiques des colonies, notariat, Saint-Domingue (ANOM DDPC NOT SDOM, 이하 SDOM) registre 1418, 9 juin 1783.(Garrigus, *Before Haiti*, p. 2에서 재인용); 그가 툴루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의 누이인 엘리자베스가 툴루즈에 거주했고 그녀의 남편이 툴루즈 고등법원의 법률대리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레몽 역시 법학을 공부했으리라고 추측된다.

22) 신참자들은 인디고로부터 염료를 추출해내는 복잡한 공정에 익숙하지 않았던 반면 레몽은 아버지의 농장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Garrigus, “Blue and Brown,” pp. 262-263.

23) 레몽이 3만5천 리브르의 지참금을 지녔던 반면 뱅상은 6만 리브르의 지참금을 가져왔다. 그러나 뱅상은 결혼 후 1년이 안 되어 사망했다. 두 번째 부인 다마르는 사망한 전 남편에게서 7만1천 리브르 상당의 농장을 유산으로 받은 상태였고 8만 리브르가 넘는 지참금을 가져왔다. Nemours, “Julien Raimond,” pp. 259-260.

24) Garrigus, “Blue and Brown,” pp. 249-250.

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유산가의 지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남부에는 산지가 많아 프랑스인들의 진출이 뒤늦었고 프랑스 상선의 왕래가 적어 본국과의 무역 흐름이 부재했다. 따라서 남부에서는 식민지가 본국과만 무역해야 한다는 독점무역체제(*l'Exclusif*)가 유지되지 못했고 밀무역이 성행했다. 그 결과 자유유색인들에게도 많은 경제적 기회가 열려있었다. 이들은 인디고 밀무역을 통해 부를 쌓았다.²⁵⁾ 설탕을 생산하려면 대규모 설비와 노동력이 필요했지만 인디고 생산은 그러한 과정을 요구하지 않아 적은 자본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 유럽 내 직물업이 대두하여 염료 수요가 증가했고 인디고의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었다.²⁶⁾ 1785년에 공증을 받은 레몽의 상업서류들 중 40퍼센트가 국제거래와 관련된 것이었고 특히 네덜란드의 기항지 퀴라소(*Curaçao*)에서 가장 많은 영수증이 발행되었다.²⁷⁾

그렇다면 레몽의 재산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는가? 그의 재산 규모는 최상층 유산가들의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평범했다. 동시대의 백인 농장주들이 소유했던 거대한 설탕 대농장들의 가치는 레몽의 재산의 가치보다 훨씬 컸다. 1782년 레몽의 재산이 20만2천 리브르였던 것에 비해 18세기 말 북부 평원의 설탕 대농장들, 그리고 서부에 위치한 쿼드삭(*Cul de Sac*) 평원의 설탕 대농장들의 평균 가치는 각각 97만3천 리브르, 123만6천 리브르에 달했다.²⁸⁾ 토지에 기반을 둔 프랑스의 전통적 부유층의 재산과 비교해보면 레몽의 재산을 거대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더욱 어렵다. 가령 브르타뉴의 대검귀족 가문이었던 페로네(*Ferron de la Ferronnays*) 가문이 18세기 말에 보유한 재산은 237만 리브르에 달했다.²⁹⁾

25) 식민지 경제의 성장을 장려해야 했던 관리들은 밀수업자들을 탄압하지 않았다. *Ibid.*, p. 240.

26) 영국 식민지 자메이카, 네덜란드 식민지 퀴라소의 상인들은 빈번하게 생도맹그 남부로 와서 인디고를 구매했다. *Ibid.*, pp. 239-243.

27) *Ibid.*, pp. 249-250.

28) 160만 리브르에 달하는 북부 리모나드(*Limonade*)의 설탕 대농장, 85만 리브르에 달하는 북부 트루(*Trou*)의 설탕 대농장 등이 그 사례이다. Paul Cheney, *Cul de Sac: Patrimony, Capitalism, and Slavery in French Saint-Domingu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p. 27.

그러나 레몽의 재산은 그를 유산가의 반열에 올려두기에는 충분했다. 그의 재산은 백인 농장주나 전통적인 토지귀족의 재산 규모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일반적인 노동자의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18세기 말 프랑스 노동자 다수의 수입은 하루 1리브르 내외였다.³⁰⁾ 파리의 건축숙련공 같은 숙련 노동자의 수입이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1년에 5백 리브르 정도였다.³¹⁾ 또한 생도맹그의 백인들은 1789년의 삼부회에 보낼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식민지 의회 구성 계획을 세운 바 있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선거권을 갖는 유산가(propriétaire)는 도시에 자택을 소유하고 노예 25명이 딸린 대농장에 상응하는 토지재산을 지닌 농장주로 규정되었다.³²⁾ 이 기준에 비춰보아도 레몽은 유산가로 인정받을 만한 재산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18세기 말 생도맹그 남부에서는 레몽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을 지닌 자유유색인들이 다수 등장하여 중소 규모의 농장주 집단을 형성했다.³³⁾ 이들의 경제적 성장은 생도맹그 사회에 전에 없던 새로운 유산가 계급이 등장했음을 의미했다. 이들은 백인들 사이의 틈을 파고들었다. 당시 생도맹그의 백인들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재산 수준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농장주나 관리 같은 대백인(grands blancs), 피고용인으로서 농장의 대리인이나 감독으로 일했던 가난한 소백인(petits blancs)으

29) 이 재산은 프랑스 전체에서 상위 13%의 수준이었다. 18세기에 대서양 상업이 성장하면서 토지에서 나오는 부는 상대적으로 쇠퇴하였으나 여전히 18세기 프랑스 경제에서는 농업이 지배적이었고 토지 엘리트의 일원들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Ibid.*, pp. 15-26.

30) 1793년 6월의 도(département) 정부들에 의해 실행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1790년 낱품팔이 농민들(journalier)의 평균 일급은 1리브르 6드니에였다. 도시 노동자의 평균 일급은 1리브르 3수 4드니에였다. 1리브르는 20수, 1수는 12드니에 상응한다. Fernand Braudel et Ernest Labrousse, dir., *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France* tome. ii,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0, pp. 491-492.

31) Cheney, *Cul de Sac*, p. 18.

32) 다만 이 규정은 오로지 백인들만을 대상으로 했고 자유유색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Blanche Maurel, *Cahiers de doléances de la colonie de Saint-Dominique pour les États généraux de 1789*, Paris: Ernest Leroux, 1933, pp. 286-287.

33) 드파-메디나(Depas-Medina) 카사마조르(Casamajor), 트리셰(Trichet), 에라르(Hérards), 부아롱(Boisronds) 등 가문들이 있었다. Garrigus, "Colour, Class and Identity," pp. 28.

로 분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자유유색인 농장주들이 새로운 유산가 계급으로 등장하여 소백인들을 경제적으로 앞지르면서 비백인이 일부 백인에 대한 계급적 우위를 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 흑인 혈통을 지닌 모든 이들을 차별했던 식민지의 인종적 계서제와의 충돌로 이어졌다.

2, 인종적 계서제의 강화와 자유유색인 차별

소백인들은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자유유색인들을 맹렬히 공격했고 그들에 대한 차별적 입법을 촉구했다. 대백인에 해당하는 백인 농장주들 역시 자유유색인 농장주들을 경쟁자로 여겨 적대적 태도를 취했다.³⁴⁾ 이에 레몽은 1790년대에 소책자와 청원서들을 출판하여 백인들의 부당한 공격을 고발했다. 레몽의 소책자 『자유유색인들에 대한 백인 식민지인들의 편견의 기원과 확산에 대한 소견』(Observations sur l'origine et le progrès du préjugé des colons blancs contre les hommes de couleur)에 따르면 자유유색인에 대한 차별이 처음부터 식민지에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 레몽은 1760년대 이전에는 백인과 자유유색인이 교체하는 것이 전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유색인들이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민병대 장교로 임명되기도 했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³⁵⁾

레몽은 1760년대부터 식민 당국이 인종적 계서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자유유색인에 대한 탄압을 제도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식민지의 관료제가 오로지 백인에게만 개방되었음을 언급하며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지적했다. 1768년에는 민병대 개혁이 이루어져 자유유색인은 백인들이 기피하던 민병대 복무 임무를 떠맡게 되었으나 장교 직책에서는 배제되었고 기존의 자유유색인 장교들은 그들의 지위를 박탈당했

34) Yves Béno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 1789-1794*, Paris: La Découverte, 1987, pp. 61-63.

35) Raimond, *Observations sur l'origine et le progrès du préjugé des colons blancs contre les hommes de couleur*, Paris: Chez Belin, 1791.1.26, p. 4.

다.³⁶⁾ 또한 그는 직업, 의복, 패물착용 등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통제를 규탄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폭정일 뿐 아니라 본국의 산업을 파괴하는 졸렬한(*impolitique*) 것이라고 비판되었다.³⁷⁾ 그밖에도 그는 자유유색인들이 유럽식 이름을 버리고 아프리카식 이름을 취하도록 강요당한 것, 자유유색인들이 공증문서나 교회문서에 기록될 때 이름 옆에 인종적 꼬리표가 따라붙게 된 것 등 당국의 부당한 조치들을 지적했다.

레몽 본인도 피해자였다. 많은 자유유색인과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 옆에도 인종적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1766년 5월의 공증문서에 기록된 그의 이름 옆에는 이전과 달리 “쿼드룬(*quateron*)”이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었다. 1784년에는 그전까지 그의 이름을 수식했던 “*Sieur*”라는 경칭이 삭제되었고 그의 이름 옆에는 쿼드룬이란 단어 뿐 아니라 그의 부모의 이름과 인종적 특성까지 병기되었다.³⁸⁾ 또한 그는 부친 사후 어머니의 농장 관리직을 맡은 백인 론네(*Lonné*)에게 “무례한 물라토들”이라며 빈번하게 모욕을 당했고 1774년에는 그와 법정에서 충돌하기까지 했다.³⁹⁾ 1785년에 그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백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⁴⁰⁾

36) 레몽은 라바디(*Guillaume Labadie*), 부리(*Jacques Bourry*), 들로네(*Jacques Delaunay*) 등 지위를 상실한 자유유색인 장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 *Ibid.*, p. 9.

37) 자유유색인들이 외과의사와 산파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또한 자유유색인이 백인과 같은 직물의 옷을 입는 것, 보석을 착용하는 것, 바퀴달린 마차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Ibid.*, pp. 8-11.

38) 본래 *Sieur Julien Raimond*으로 지칭되었던 그는 1766년부터는 *Sieur Julien Raimond fils, quarteron*으로 지칭되었고 1784년에는 *Sieur*라는 경칭이 빠지고 부모의 인적사항이 추가되어 *Julien Raimond, QL(quarteron libre), fils légitime du sieur Pierre Raimond et de la nommée Marie Madeleine, griffe libre*으로 지칭되었다. *Gauthier, L'Aristocratie*, p. 369.

39) 론네는 쥘리앵 레몽의 동생인 기욤 레몽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기소했고 보상으로 5만 리브르를 요구했다. 쥘리앵 레몽은 동생을 도와 진술서를 쓰면서 론네의 기소는 단지 자신들의 평판을 대중 앞에서 깎아내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Garrigus, Before Haiti*, pp. 144-146.

40) 그는 프랑스 본토에 지니고 있던 푸사르드리(*Poussarderie*)의 영지(*seigneuries*)를 1785년 생루이(*Saint Louis*)의 연대장이자 기사였던 리니에르 백작(*comte de Linières*)에게 어쩔 수 없이 판매해야만 했다. 당시 프랑스의 지배계급은 유색인의 손에 영지가 보유되어 영주의 권리를 유색인에게 넘기는 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Nemours, "Julien Raimond,"* p. 261.

그렇다면 레몽이 1760년대 이후 인종적 계서제가 강화된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레몽은 백인 여성들의 질투(jalousie)가 자유유색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유발했고 이것이 인종적 계서제를 강화하는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8세기 중반에 생도맹그의 수익성이 커지자 많은 유럽인들이 생도맹그로 건너왔고 그 중에는 딸들을 부유한 식민지인들과 결혼시키려고 딸들과 함께 온 어머니들도 있었다. 그 결과 생도맹그 내 백인 여성의 수는 증가했으나 백인 남성들은 토지와 노예를 지참금으로 가져오는 자유유색인 여성과의 결혼을 여전히 선호했다. 레몽은 이러한 상황이 백인 여성들의 질투심을 유발했다고 보았다. 백인 여성들은 식민지에 온 귀족 자제들 다수가 부유한 가문 출신의 자유유색인 여성과 결혼하여 손쉽게 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보면서 자유유색인을 질투하게 되었고 이 질투가 자유유색인에 대한 증오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⁴¹⁾ 레몽은 자유유색인 젊은이들이 프랑스로 건너가 교육을 받았던 것이 백인들의 질투심을 더 자극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에서 학문적 자질을 연마하고 돌아온 젊은 자유유색인들은 소백인들과 달리 재능과 지식을 지니고 있었고 열등감에 가득 찬 소백인들은 그들을 더욱 비난했다는 것이다. 레몽은 “바보들은 지성을 용서하지 않고, 폭군들은 덕성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성과 덕성을 갖추지 못한 소백인이 자유유색인의 재능과 근면함을 질투시키려고 억압적인 법률들을 요구하는 것이 식민지의 현실이라며 개탄했다.⁴²⁾

레몽의 분석은 1760년대 이후 생도맹그의 인종적 계서제가 강화된 배경에 소백인과 자유유색인 유산가 간의 경제적 긴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7년 전쟁(1756-63) 이후 대서양 항로가 복구되면서 생도맹그에는 가난한 백인 이민자들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 소백인들은 대개 기술도 자본도 부족하고 식민지에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⁴³⁾ 대백인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들은 자유유색인들과 일자리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으며 자유유색인 농장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도 있었

41) Raimond, *Observation sur l'origine*, pp. 5-6.

42) *Ibid.*, pp. 6-7.

43) Cheney, *Cul de Sac*, p. 36.

다. 자유유색인 유산가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쳐진 그들은 인종이라는 범주를 내세워 자유유색인 유산가들을 폄하하고 모욕했다. 그들은 경제적 뒤처짐을 만회하고자 인종차별적 법률 제정에 매달렸고 자유유색인을 “제3의 잡종(un troisième espèce hybride)”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애썼던 것이다.⁴⁴⁾

레몽의 분석은 18세기 말 생도맹그 내 자유유색인과 백인 간의 경제적 긴장을 잘 드러내고 있으나 그것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맹점을 지닌다. 생도맹그의 인종적 계서제는 노예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수적 열세에 처한 백인들은 식민지 경제의 토대인 노예제를 유지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을 가혹하게 통제했다. 또한 흑인의 혈통을 물려받은 모든 이들을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규정했으며 그들을 식민지의 정치생활에서 배제했다.⁴⁵⁾ 백인들은 자유유색인라는 인종적 완충지대가 존재해야만 노예제를 기반으로 하는 식민지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⁴⁶⁾ 따라서 레몽이 언급하고 있는 백인 여성들의 질투, 가난한 소백인과 부유한 자유유색인의 경제적 긴장은 1760년대에 이르러 인종적 계서제를 심화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의 본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레몽의 분석은 왜 노예제의 모순이라는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을까? 이와 관련하여 레몽이 식민지 노예제를 뿌리로 하는 인종적 계서제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노예제의 수혜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흑인혈통을 지니고 있었으나 노예노동의 희생으로 자신이 부유하게 된 것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⁴⁷⁾ 그는 유색인이면서도 노예를 소유한 유산가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인종적 계서제에 대한 그의 비난은 노예제라는 근본적인

44) Robert Stein, “The Free Men of Colour and the Revolution in the Saint-Domingue, 1789-1792,” *Social History* vol. 14 no. 27 (May, 1981), p. 15.

45) 이와 관련하여 고티에는 자유유색인들의 권리를 부인하려는 움직임은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되었음이 지적하고 있다. Gauthier, *L'aristocratie*, p. 55 ; 듀보이스, 『아이티혁명사』, pp. 104, 115.

46) Raimond, *Mémoire sur les causes des troubles et des désastres de la colonie de Saint-Domingue*, Paris, 1793, p. 7.

47) Nemours, “Julien Raimond,” p. 261.

문제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기 어려웠다. 만일 그가 자유유색인에 대한 차별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노예제를 공격한다면 이는 결국 노예소유자인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되돌아올 것이었다. 자유유색인에 대한 백인의 인종적 편견을 비판하면서도 흑인들의 노예노동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했던 레몽의 사고방식은 이후 그가 전개한 여러 활동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III.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1782-1792)

1. 자유유색인의 미덕

레몽은 자유유색인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유색인이 백인과 동일하게 시민으로서의 미덕을 지닌 프랑스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그 시발점은 1782년 해군 함선 건조를 위한 자금 모금이었다. 당시 생도맹그에서는 국왕에게 바쳐질 선박이 건조되는 중이었는데 레몽과 자유유색인들은 선박 건조의 경제적 부담을 나눠짐으로써 자신들이 프랑스에 가치있는 존재임을 보이려고 했다. 총독 벨콩브(Guillaume Léonard de Bellecombe)는 자유유색인들의 참여를 승인했고 레몽은 인근의 자유유색인들을 자신의 집에 불러모아 총 9천4백1십 리브르를 모금했다. 모금을 위해 모인 자유유색인들은 백인들의 편견에 항의하는 보고서를 관료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레몽을 지도자로 삼았다.⁴⁸⁾

그리하여 레몽은 1783년 벨콩브에게 자유유색인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보냈다. 이를 읽은 벨콩브는 그해 5월 레몽에게 회신을 보내 본국의 해군대신 카스트리(Marquis de Castries)와 만나볼 것을 권유했다.⁴⁹⁾ 레몽은 1784년 5월에 아내와 함께 생도맹그를 떠나 7월에 보르도에 도착하였고 이후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450킬로미터 떨어진 앙굴렘(Angoulême)에 머무르면서 때때로 파리를 방문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⁵⁰⁾ 그는 1785-86년에 걸쳐 해군대신 카스트리에게 『자유유색인들을 위한 요구들』(Réclamations en faveur des gens de couleur)로 통

48) Debien, "Gens de couleur libres," p. 217.

49) Raimond, *Observations adressés à l'Assemblée Nationale, par un député des colons américains*, Paris, 1789, p. 6에 기록된 1783년 5월 11일 벨콩브의 편지. 본 사료는 후술할 내용과 같이 1789년 레몽이 자유유색인 참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국민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이다. 레몽은 이 청원서에 1783년 5월에서 1789년 3월 사이 자신이 식민지 및 본국의 관료들과 주고받았던 서신내용을 그대로 포함시켰다.

50) 레몽의 아내는 앙굴렘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Gauthier, *L'aristocratie*, p. 21.

칭되는 세 편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최초의 정치적 저술을 통해 부당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했다.⁵¹⁾

레몽의 보고서는 자유유색인이 악덕을 타고났다는 백인들의 인종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⁵²⁾ 백인들은 자유유색인들이 아메리카의 열대기 후 속에서 태어나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여성적” 욕망으로 가득찬 이들 이므로 그들을 식민지 사회에서 배제하고 백인 혈통의 비중에 따라 모든 피부색을 구분하는 엄격한 사회적 위계를 수립해야 생도맹그 사회에 질서가 확립된다고 생각했다.⁵³⁾ 이에 대응하여 레몽은 노예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두 세대 후에는 시민이 될 수 있게 해 주었던 고대 로마의 관습을 인용했다. 그는 고대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생도맹그에서도 노예제는 인종이 아니라 법률과 재산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며, 유산가인 자유유색인에 대한 차별은 대농장 체제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위협이라고 주장했다.⁵⁴⁾

또한 레몽은 자유유색인 여성과 백인 남성의 내연관계가 자유유색인 여성의 타락을 증명한다는 백인들의 주장에 반박했고 오히려 백인들의 인종적 편견이 내연관계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인들은 자유유색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책되거나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백인 남성들은 자유유색인 여성을 욕보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백인 남자들과 달리 자유유색인 남자들은 모두가 민병대에 징집되어 가족과 떨어진 곳에서 복무하므로 가족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아내와 딸들에 대한 권위를 상실하게 되어 자유유색인 여성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⁵⁵⁾ 레몽은 자유유색인의 도덕적 타락 또한 자유유색인의 본질이 아니며 그 책임이

51) Raimond, *Observations adressés à l'Assemblée Nationale*, p. 7, 사료에는 3편의 보고서라고 나오는 반면 일부 연구서에는 4편이라고 되어 있다.

52) Gauthier, *L'aristocratie*, p. 114.

53) 브르타뉴에서 태어나 생도맹그로 이주해온 작가 도베르퇴이(d'Auberteuil)는 엄격한 피부색의 위계질서를 준수하여 모든 흑인은 노예가 되고, 모든 자유유색인은 경찰대에서 복무한다면 권위주의적 군사통치 없이도 식민지의 사회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Garrigus, *Before Haiti*, p. 160.

54) *Ibid.*, pp. 218-219.

55) AN Col. F391, pp. 171 - 83 (Garrigus, *Before Haiti*, p. 218에서 재인용).

백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인종적 계서제가 확고해지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자 이에 좌절한 자유유색인들은 더 이상 도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⁵⁶⁾ 이러한 레몽의 주장은 백인 농장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생도맹그의 총독과 본국의 해군대신을 비롯한 관료들은 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자유유색인을 옹호할 만큼 대담하지 않았으며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⁵⁷⁾

2. 혁명과의 결합

1789년 혁명이 발발하자 레몽은 새로운 정국에서 동맹자가 될 만한 이들을 탐색했다. 레몽은 파리에 있던 다른 자유유색인들과 세력을 합쳤고 그들이 결성한 아메리카식민지인협회(Société des colons américains)에 합세했다.⁵⁸⁾ 레몽은 협회 대표 5인 중 하나로 선출되었고 이들은 1789년 10월 제헌의회에 참석해 자유유색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레몽과 자유유색인 대표단이 제출한 진정서는 자유유색인이 유럽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고 재산소유자이므로 노예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제헌의회가 공포한 인권선언을 근거로 자유유색인과 백인 간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⁵⁹⁾ 그러나 노예제를 옹호했던 백인 농장주들의 이익단체 마시악 클럽(Club Massiac)은 자유유색인들의 주

56) *Ibid.*, pp. 177-78, 183, 194 (Garrigus, *Before Haiti*, p. 219에서 재인용).

57) Debien, "Gens de couleur libres," pp. 217-219; Gauthier, *L'aristocratie*, p. 115; 더구나 카스트리가 1787년 8월에 해군대신직에서 내려온 이후 변화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Shelby McCloy, *The Negro in France*,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61, p. 66; 1786년 5월부터 1789년 3월까지 레몽이 카스트리, 신임 생도맹그 총독 루체른 백작과 주고받았던 편지는 상세한 정황을 보여준다. Raimond, *Observations adressés à l'Assemblée Nationale*, pp. 8-11.

58) 아메리카식민지인 협회는 1789년 8월 29일에 첫 모임을 가졌는데, 이 때에는 레몽은 아직 협회를 알지 못한 상태였다. 레몽은 9월에 협회를 알게 되었고 이후 본격적으로 협회 활동에 동참했다. Gauthier, *L'aristocratie*, pp. 33-37.

59) Cahier, contenant les plaintes, doléances & réclamations des citoyens-libres & propriétaires de couleur, des isles & colonies françaises, 1789; 양희영, 「프랑스 혁명과 물라토의 정치적 권리」, 『프랑스사연구』 제25호, 2011, pp. 69-72.

장을 꺾고 그들의 협회를 분열시키고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⁶⁰⁾ 수세에 몰린 레몽은 스스로가 노예소유주였음에도 정치적 우군을 얻기 위해 그해 11월 라파예트(La Fayette), 브리소(Brissot), 콩도르세(Condorcet), 그레구아르(Grégoire) 등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이루어진 반노예제 단체 흑인의 벗 협회(Société des amis des noirs)와 손을 잡았다.⁶¹⁾ 레몽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국민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소책자들을 발간했다.

레몽은 자유유색인의 대의를 적극적으로 혁명과 연결시키기 시작했다.⁶²⁾ 1789-1792년에 출판된 청원서들에서 그는 백인들의 인종적 편견에 반박하기 위한 논거로 프랑스 혁명에서 제기된 권리의 평등을 제시했다. 레몽은 1789년에 출판한 청원서 『국민의회에 보내는 소견』(Observations adressés à l'Assemblée Nationale)에서 “자유유색인이 식민지에서 능동시민의 권리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레몽에 따르면 자유유색인은 식민지의 자유로운 시민(citoyens libres des colonies), 재산소유자(possesseurs), 납세자(contribuables), 유익한 자(très-utiles)이며 불가침의 인권(droits imprescriptible de l'homme)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자유인들과 같은 계급(classe), 같은 신분(ordre)에 속했다. 그는 따라서 자유유색인은 백인과 다름없는 능동시민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⁶³⁾

이어 레몽은 능동시민의 자격을 갖춘 자유유색인들에게 국민회의의 의석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반대하는 백인들을 논박했다. 백인들은 생도맹그 전체를 대변하는 백인대표들에게 이미 의석이 부여되

60) 레몽은 1789년 8월 마시악 클럽에 방문하여 자유유색인의 대의를 호소했으나 백인 농장주들은 자유유색인의 편에 서기를 거부했다. Raimond, *Véritable origine des troubles de S.-Domingue, et des différentes causes qui les ont produits*, Paris: Chez Desenne, 1792, pp. 15-17.

61) Cook, “Julien Raimond,” pp. 143-144; 창립자 브리소는 자유유색인들이 노예무역 폐지 투쟁의 동맹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Geggus, “Racial Equality, Slavery, and Colonial Session,” in *Haitian Revolutionary Stud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p. 164.

62) Cook, “Julien Raimond,” p. 141.

63) Raimond, *Observations adressés à l'Assemblée Nationale*, pp. 1-10, 14.

었으니 자유유색인에게 별도의 의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몽은 자유유색인은 백인 대표들을 뽑는 선거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백인 대표들이 자유유색인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⁶⁴⁾ 그는 오로지 자신만이 자유유색인의 대표자임을 강조했다.⁶⁵⁾ 또한 백인들은 자유유색인의 수와 재산이 부족하므로 그들의 대표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레몽은 자유유색인의 수는 백인에 필적하며 그들의 재산은 아메리카의 재산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응수했다.⁶⁶⁾

레몽은 1790년의 청원서 『국민의회에 보내는 요구』(Réclamations adressées à l'Assemblée Nationale)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자유, 평등, 우애라는 혁명의 교의와 인권 개념을 자유유색인 참정권의 논거로 활용했다. 그는 우선 국민의회가 ‘인류애의 성스러운 권리(droits sacrés de l'Humanité)’를 수립하였고 프랑스를 자의적인 권력과 봉건제의 잔재로부터 해방시켰다면 찬사를 보냈다. 이어서 국민의회는 동등한 시민들 사이의 차별을 조장하는 야만적 편견들과 굴욕적인 관습이라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회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혁명의 진정한 완성을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유색인에게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던 것이다.⁶⁷⁾

레몽은 인권선언의 조항들을 인용하면서 인권선언의 필연적 귀결은 자유유색인의 참정권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유색인이 백인에게 탄압을 당하고 있는 이상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는 제1조는 준수되고 있다고 할 수 없었다.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는 자유유색인들의 결사는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64) *Ibid.*, p. 2.

65) 레몽은 본국으로 가기 전에 레카이, 포르토프랭스, 르캅 등 생도맹그 주요 지역의 자유유색인들로부터 파견에 대한 구두동의를 얻었다. Debien, “Gens de couleur libres,” p. 218.

66)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자유유색인 참정권에 대한 정당성은 더 커졌다. 레몽은 백인들 중 재산과 거처가 없는 자들을 제외한다면 백인 인구가 8천 명에 지나지 않으나 자유유색인의 수는 2만7천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Raimond, *Observations adressés à l'Assemblée Nationale*, pp. 12-13.

67) Raimond, *Réclamations adressées à l'Assemblée Nationale, par des personnes de couleur, propriétaires & cultivateurs de la colonie française de Saint-Domingue*, Paris, 1790, p. 1.

같이 “압제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했다.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며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그것의 형성에 협력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제6조는 국민의회 내 자유유색인 의석의 당위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공공의 기여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그것에 자유로이 동의한다”고 규정한 제14조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는 자유유색인들은 조세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했다.⁶⁸⁾ 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한 레몽은 권리의 평등이 자유유색인의 대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양자를 적극적으로 결합시켰던 것이다.

제헌의회에게 레몽의 청원은 혁명이 내건 권리의 평등이라는 기치의 인종적 경계에 대한 최초의 시험이었다. 생도맹그의 백인들은 이미 혁명 발발 직전에 대표단을 본국에 파견해 1789년 5월의 삼부회에 입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백인 대표들은 국민의회가 선포되던 순간에 본국의 다른 대표들과 같이 맹세를 함으로써 국민의회 의석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자유유색인들도 권리의 평등을 주장하며 의석을 요구하자 국민의회로서는 어느 부류까지를 능동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국에서는 재산과 납세액이라는 계급적 요소만으로 능동시민의 자격을 결정할 수 있었으나 식민지에서는 인종문제로 인해 계급의 구분선이 모호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레몽이 제기한 문제, 즉 유럽인의 혈통을 물려받았고 충분한 재산을 보유한 자유유색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혁명 이념 자체의 유효성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문제였던 것이다.⁶⁹⁾

그러나 제헌의회는 레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민지 문제 처리를 위해 설치된 제헌의회 식민지위원회(*comité des colonies*)가 1790년 3월 8일에 제안한 법령(*décret*) 및 시행세칙을 규정한 3월 28일의 훈령(*instruction*)은 프랑스의 헌법이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식민지에서는 “시민(*citoyen*)”에 의해 자유롭게 선출된

68) *Ibid.*, pp. 2-8; 인권선언의 우리말 번역은 최갑수, 「1789년의 「인권선언」과 혁명기의 담론」, 『프랑스사연구』 제4권, 2001, pp. 32-33을 참조하였다.

69) Geggus, “Racial Equality,” pp. 158-170.

자체 의회가 식민지 내부 사안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 권리를 부여받을 것이었다. 레몽과 자유유색인들은 자신들도 시민에 속한다고 탄원하였고 “피부색에 상관없는 모든 시민(tout citoyen quelle que soit sa couleur)”이라는 명시적 어구를 훈령에 삽입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⁷⁰⁾ 최종적으로 훈령에는 “25세가 되고, 재산이 있으며, 2년 이상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toutes personnes)이 능동시민이 된다”는 모호한 어구가 사용되었다.⁷¹⁾

3. 자유유색인과 흑인의 구분

생도맹그의 백인들이 설립한 식민지 의회인 생마르크 의회(Assemblée de Saint-Marc)는 1790년 3월 28일의 훈령이 규정하는 “모든 사람”이 백인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고 자유유색인들의 의회 참여를 막았다. 레몽은 생마르크 의회가 자유유색인을 배제함으로써 혁명 원칙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⁷²⁾ 과리에서 활동하던 또 다른 자유유색인 지도자 오제(Vincent Ogé, 1755-1791) 역시 크게 반발했다. 그는 비밀리에 생도맹그로 돌아가 1790년 10월에 북부의 동동(Dondon)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들을 규합하여 무장봉기를 일으켰지만 곧 진압되어 거열(車裂)형에 처해졌다. 오제의 봉기에 대한 가혹한 진압은 다시금 자유유색인과 백인 간 분쟁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여파로 제헌의회에서는 1791년 5월에 식민지 문제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다시 일어났다.⁷³⁾

70) Valerie Quinney, “The Problem of Civil Rights for Free Men of Color in the Early French Revolution,”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7 no. 4 (1972), pp. 551-552.

71) Décret de l’Assemblée nationale concernant les colonies: suivis d’une instruction pour les Isles de Saint-Domingue, la Tortue, la Gonave et l’Isle-à-Vaches. Du lundi 8 mars 1790.

72) Raimond, *Véritable origine*, pp. 23-24; Raimond, *Lettre au citoyen D***, député à la convention nationale, par Julien Raymond, colon de Saint-Domingue, sur l’état des divers partis de cette colonie, et sur le caractère des déportés*, Paris, 1793.2.24., pp. 8-9.

이 시기에 출판된 레몽의 글들은 자유유색인이 흑인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레몽은 자유유색인이 지닌 유럽인의 혈통, 재산뿐만 아니라 자유유색인이 흑인과는 달리 시민으로서의 미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레몽에 따르면 흑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오랜 세월 야만적인 습속 속에서 살아왔으므로 해방된다고 해도 주인들에게 자유를 빚지고 있으며 미덕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았다. 반면 자유유색인은 자유인으로 태어나 그 누구에게도 자유를 빚지지 않았고 미덕으로 충만한 이들이었다. 따라서 레몽은 백인들이 자유유색인과 흑인을 동류로 취급하는 것은 그릇된 편견이라고 주장했고 식민지의 백인 농장주들이 편견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유색인의 권리가 인정되면 흑인의 권리가 인정되어 노예제가 흔들리고 식민지가 위협에 빠지리라는 공포감 역시 백인 농장주들이 자유유색인을 억압하고 식민지의 특권계급(aristocratie)이 되어 자신들의 뜻대로 식민지를 좌우하기 위해 만들어낸 편견이라고 지적했다.⁷⁴⁾ 백인 농장주들은 제헌의회에 근거 없는 공포감을 퍼뜨려 제헌의회로 하여금 자유유색인을 흑인 노예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게 함으로써 혁명을 졸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견의 제거는 자유유색인들이 응당 누려야 할 권리의 회복일 뿐 노예제와 식민지를 동요시키는 급진적 변혁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⁷⁵⁾

레몽은 본국에서 생도맹그로 돌아간 자유유색인들이 노예들의 동요를 촉발시키고 식민지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일부 백인 농장주들의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백인 농장주들의 대변자로서 그러한 주장을 펼쳤던 변호사 모로(Moreau de Saint-Méry, 1750-1819)와의 논쟁에서 레몽은 오히려 본국에 파견된 생도맹그 백인 대표들이 위기를 불러왔다고 역설했다.⁷⁶⁾ 백인 대표들은 유럽에 있는 자유유색인들이 식민지로 돌아가면 노

73) 듀보이스, 『아이티혁명사』, p. 145; Popkin, *You Are All Free: The Haitian Revolution and the Abolition of Slave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36.

74) Raimond, *Observations sur l'origine*, p. 13.

75) *Ibid.*, p. 1.

76) 마르티니크 출신의 모로는 파리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1774년에 생도맹그에 정착

예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할 것이니 그들을 경계하라는 편지를 식민지의 백인들에게 전했다.⁷⁷⁾ 편지를 받은 백인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곳곳에서 자유유색인에 대한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이를 목격한 노예들이 동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레몽의 설명이었다.⁷⁸⁾ 레몽에 따르면 모로는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유유색인들의 참정권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범죄적인 침묵(silence criminel)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꾸며낸 것이었다.⁷⁹⁾

레몽은 백인들을 비판하는 한편 자유유색인 참정권이 백인에게도 유익하다고 백인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는 동요하는 흑인들에게 맞서 자유유색인과 백인이 연대할 것을 제안했다. 자유유색인은 백인과 연합하여 흑인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자이므로 자유유색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백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능동시민의 권리를 부여 받은 자유유색인들은 백인의 형제가 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그들 자신과 백인의 재산을 지키리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본국의 백인들이 식민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파견하던 병력도 불필요해질 것이므로 본국의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터였다.⁸⁰⁾

했다. 그는 생도맹그의 법, 역사, 환경, 경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혁명 발발 이후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주하여 그 동안 모은 정보들을 책으로 출판했다. 한편 레몽은 백인 농장주들의 대변자였던 모로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1791년 5월에 소책자를 출판했다. Raimond, *Réponse aux considérations de M. Moreau, dit Saint-Méry sur les colonies*, Paris: l'Imprimerie du Patriote François, 1791.5.

77) 동시에 그들은 자유유색인들이 귀환하면 혁명이 생도맹그로 전파되어 동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했고 프랑스 전역의 상공회의소에 서신을 보내 자유유색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다. Raimond, *Véritable origine*, p. 20 ; Dubois, “An Enslaved Enlightenment: Rethinking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French Atlantic,” *Social History* vol. 31 no. 1 (2006), p. 9.

78) 레몽은 생도맹그 백인 대표들이 파리에서 1789년 8월 12일에 보낸 서한이 자유유색인들을 경계하라는 근거 없는 경고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Raimond, *Réponse*, p. 39; 이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1790년 5월 익명으로 출판된 *Correspondance secrète des colons de Saint-Domingue avec les comités de cette île*에서 찾아볼 수 있다.

79) 레몽은 실제로 발생한 폭력사태들과 그 희생자들의 실명을 거론했고 모로가 이 사례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침묵했다며 비판했다. Raimond, *Réponse*, pp. 25-35.

80) *Ibid.*, pp. 47-49.

결국 1791년 5월의 논쟁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졌고 그달 15일에 통과된 법령은 자유유색인들 중 양친이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인 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비록 참정권을 얻은 자유유색인은 소수였지만 레몽은 기뻐하며 생도맹그의 자유유색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⁸¹⁾ 그러나 백인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극소수의 자유유색인들에게라도 투표권을 허용하면 인종적 위계질서와 노예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 소식을 재앙으로 여겼다.⁸²⁾ 법령이 생도맹그에 당도하자 그때까지 혁명과 식민지의 향배에 대해 제각기 다른 태도를 취해왔던 백인들은 한목소리로 제헌의회를 비난했고 총독 블랑슈랑드는 백인들의 반대 때문에 법령을 집행할 수 없었다.⁸³⁾ 결국 제헌의회는 1791년 9월 24일에 법령을 철회했고 비백인의 권리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백인들이 장악한 식민지 의회의 재량에 넘겼다.⁸⁴⁾

자유유색인의 권리를 지지하는 주장들은 1791년 8월 생도맹그 북부에서 발발한 노예반란의 소식이 파리에 전해지면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 1792년 3월에 입법의회에서는 생도맹그의 노예반란을 중단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레몽은 『생도맹그의 문제들과 그것을 초래한 여러 원인들의 진정한 기원』(Véritable origine des troubles de S.-Domingue, et des différentes causes qui les ont produits)이라는 새로운 소책자를 발간하여 노예반란의 책임이 두 가지 점에서 백인 식민지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식민지 백인들의

81) 그는 동료들에게 과거의 원한을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법률을 준수하며 식민지의 질서 재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Raimond, *Lettre des commissaires des citoyens de couleur en France, à leurs frères et commettans dans les isles françoises*, Paris, 1791.6.10., p. 2.

82) Carolyn Fick, *The Making of Haiti: The Saint-Domingue Revolution from Below*.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0, p. 85; 식민지 대표들은 파리에서 법안이 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한꺼번에 퇴장했고, 통과된 법령이 생도맹그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본국과 식민지 간의 서신교류를 방해했다. Raimond, *Lettre au citoyen D*, p. 13.

83) Raimond, *Mémoire*, p. 21; 듀보이스, 『아이티혁명사』, p. 147.

84) 자유유색인들은 이 소식에 경악했고 피압제자에 대한 지지를 천명했던 인민의 대표들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국민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Raimond, *Lettre au citoyen D*, p. 14.

폭력적 언행이 노예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백인들은 노예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유색인에게 폭력을 행했고, 1791년 5월 15일의 법령 이후에는 국민의회에 저주를 퍼부으며 국가의 최고 권력에 대한 반항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그들은 본국 국민의회에 종속된 자신들의 상태가 노예와 다름없다며 “자유로운 삶이 아니면 죽음을(vivre libre ou mourir)”이라고 외쳤다. 레몽은 진짜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흑인들이 백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보았다.⁸⁵⁾

두 번째는 백인들이 노예들을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자유유색인들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었다. 레몽은 노예들이 자신들과 대립할 수 있는 세력인 유일한 집단인 자유유색인들의 세가 약화된 것을 파악하고 이를 틈타 반란의 깃발을 들었다고 보았다. 레몽은 자유유색인이 가장 많이 살해되고 무장해제당한 북부의 중심지 르캅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자유유색인이 무장한 상태로 남아있는 서부, 남부에서는 거대한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자유유색인이 노예들을 사주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했다는 일부 백인들의 주장에 맞서 식민지 노예들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자유유색인으로서는 노예들을 선동할 이해관계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것은 곧 그들 재산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⁸⁶⁾

당시 본국의 입법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브리소파의 다수는 레몽과 교분이 있었던 흑인의 벗들이었다. 입법의회는 레몽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예반란의 책임을 백인 농장주들에게 돌리는 한편 반란을 종식시키고 식민지를 구하기 위해 자유유색인들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1792년 4월 4일에 모든 자유유색인에게 능동 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직 진출을 허용하는 법령이 선포되었고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은 일단락되었다.⁸⁷⁾

85) Raimond, *Véritable origine*, pp. 30-31.

86) *Ibid.*, pp. 31-38.

87) 혁명 이후 선출된 식민지의 정치적 회합들은 해산될 것이었으며 자유유색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회로 대체될 것이었다. 듀보이스, 『아이티혁명사』, pp. 207-208.

레몽의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은 다양한 출판물들을 통하여 자유유색인에 대한 백인들의 편견을 적시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⁸⁸⁾ 혁명이 발발하자 레몽은 자유유색인 참정권의 정당성을 혁명 이념과 결합시켜 논의를 정교하게 진전시켰다. 프랑스에서 권리의 평등을 이뤄낸 혁명이 식민지에서는 피부색의 편견에 가로막혀 본국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⁸⁹⁾ 그리고 그는 이러한 주장으로써 식민지의 자유유색인을 유색인 시민들(citoyens de couleur)로 끌어올리고 그들이 본국 혁명정부의 보호 하에 놓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⁹⁰⁾ 레몽의 참정권 운동은 혁명 이념의 인종적 경계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고, 결국 권리의 평등을 자유유색인에게까지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레몽의 주장은 노예제를 전제로 받아들이고 자유유색인과 흑인 간의 엄격한 구분선을 그음으로써 더 이상의 확장이 불가능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자유유색인의 타락이라는 백인들의 인종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흑인에 대한 또 다른 인종적 편견을 동원했다. 또한 권리의 평등을 외쳤지만 모든 인종의 평등한 정치참여가 아니라 자유유색인과 백인 간의 평등만을 주장했다. 흑인 노예들에게까지 평등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유색인과 흑인이 “빛과 어둠이 분리되듯”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믿었던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⁹¹⁾ 결국 레몽의 자유유색인 참정권 운동은 프랑스 혁명에서 터져 나온 권리의 평등이라는 강령이 자유유색인 유산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흑인들에 대한 레몽의 태도는 후술될 그의 독특한 노예제폐지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88) 레몽은 자신에 대한 백인들의 비방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출판활동에 전념했다. 그는 출판활동이 1792년 4월 4일의 법령이 통과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정치가와 언론인들이 자신의 글을 접하고 자유유색인들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Raimond, *Correspondance de Julien Raimond, avec ses frères, de Saint-Domingue, et les pièces qui lui ont été adressées par eux*. Paris: Imprimerie du Cercle Social, 1794, pp. i-ii, 69-70.

89) Raimond, *Mémoire*, p. 7.

90) Gauthier, *L'aristocratie*, pp. 186-188.

91) Raimond, *Réponse*, p. 2.

IV. 레몽의 노예제 폐지론(1792-1801)

1. 대농장 체제 재건 - 노예에서 농업노동자로

자유유색인의 참정권이 인정된 후 생도맹그의 당면과제는 노예반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1792년 4월 4일의 법령을 집행하고 노예반란을 끝내기 위해 생도맹그로 파견되었던 관무원 송토낙스와 폴브렐에게 매우 중요했다.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레몽은 그들에게 조언을 제공했다.⁹²⁾ 레몽은 1793년에 출판한 소책자 『우리 식민지들의 문제들과 재앙들의 진정한 원인들에 대한, 특히 생도맹그의 그것들에 대한 고찰: 완전한 파멸로부터 이 식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방법들과 더불어』 (*Réflexions sur les véritables causes des troubles et des désastres de nos colonies, notamment sur ceux de Saint-Domingue: Avec les moyens à employer pour préserver cette colonie d'une ruine totale*)에서 노예반란을 끝낼 대책이 충족시켜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사실상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노예들이 완전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혁명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⁹³⁾ 그러나 흑인들의 혁명 참여는 식민지 유산가들의 이익과 프랑스 본국의 상업에 해가 되지 않아야 했다. 즉, 대농장의 환금작물 생산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다. 마지막 조건은 생도맹그를 프랑스의 식민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레몽은 영국과 에스파냐가 노예들을 끌어들여 생도맹그를

92) Garrigus, "Opportunist or Patriot?," p. 8.

93) Raimon, *Réflexions sur les véritables causes des troubles et des désastres de nos colonies, notamment sur ceux de Saint-Domingue: Avec les moyens à employer pour préserver cette colonie d'une ruine totale*, Paris, 1793, pp. 4-7. 레몽은 "인민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혁명들은 그 동반자인 인민 다수에게 유리하지 않다면 언제나 실패한다. 따라서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다수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의 운명을 개선시켜주는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식민지 인구의 12분의 1에 불과한 백인들이 아니라 식민지 인구의 9할을 차지하는 흑인들을 혁명에 참여시켜야 식민지에서도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점령하는 사태가 발발하지 않도록 프랑스가 노예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⁹⁴⁾

레몽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노예들이 부분적으로 자유를 되찾는(racheter) 방식의 점진적 노예제폐지론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의 거래 관행에 근거해 14-40세 사이의 남자노예의 가격을 3천 리브르, 12-36세 사이의 여자노예의 가격을 2천4백 리브르로 산정했다.⁹⁵⁾ 그리고 몸값의 6분의 1, 즉 남자노예는 5백 리브르, 여자노예는 4백 리브르를 주인에게 지불하면 일주일 중 하루(un jour)의 자유를 되살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노예들은 일주일에 일요일을 제외한 6일을 일하였으므로 자신의 몸값의 6분의 1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6일 중 하루의 자유를 되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되사기 과정이 반복되면 노예의 자유일은 늘어나고 6일 모두를 되사면 노예는 완전한 자유를 맞게 될 것이었다.⁹⁶⁾

그러나 레몽의 주장은 외관상 노예제폐지론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혁명을 노예들에게까지 확대시키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반란으로 인해 노예제의 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노예들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농장주로서의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려 했던 결과에 가까웠다. 우선 레몽이 점진적 노예제폐지론을 제기했던 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레몽은 혁명 발발 직후 반노예제 단체인 흑인의 벗 협회와 교류하며 점진적 노예제폐지론을 접했으나 그 후 출판한 1789년의 청원서에서 식민지에는 자유인 아니면 노예라는 두 계급(deux classes)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노예제를 전제했다.⁹⁷⁾ 또한 1791년 6월 생도맹그의 형제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그는 노예제의 존속을 전제로 형제들에게 조언을 제공했다.⁹⁸⁾ 그는 노예들이 반란으로 사실상

94) *Ibid.*, p. 13.

95) 노예의 가격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레몽은 어떤 글에서는 여자노예의 가격을 2천4백 리브르가 아닌 2천6백 리브르로 산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나이제한을 두어 노예들이 일정 연령 이상을 초과했을 시 노예의 가치는 초과한 때 1년마다 1백 리브르씩 감소한다고 보기도 했다. 그 외 농장 일에 능하고 재능이 있는 노예의 경우 4천 리브르까지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96) Raimond, *Réflexions*, pp. 24-25; Raimond, *Correspondance*, pp. 79-80.

97) Raimond, *Observations adressées*, pp. 14-15.

98) Raimond, *Lettres des commissaires*, pp. 4-7. 그는 노예들을 억제하면서도 그

자유를 획득하고 대농장이 붕괴된 1792-93년에 들어서야 점진적 노예제 폐지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1793년의 서신에서 노예들의 폭력에 직면하여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보다 노예들에게 노동과 미덕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⁹⁹⁾

레몽의 노예제폐지론이 대농장을 부활시켜 농장주들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음은 그가 내건 노예해방의 조건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노예들이 자유를 되사고자 주인에게 지불하는 몸값은 오로지 노예 스스로가 노동을 통해 취득한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다만 모든 해방에 조건부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노예가 해방을 위한 금액을 그의 노동과 생업을 통해서 취득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에만 그를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해방을 따라서 우리는 해방될 노예가 노동에 익숙해지도록, 그가 회복한 새로운 자유일을 새로운 노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노동은 그를 완전한 해방으로 더 빠르게 인도할 것입니다.¹⁰⁰⁾

레몽은 노예들이 단번에 해방된다면 대농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이 오로지 노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유를 되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노예들은 노동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으므로 노동을 고통이 아니라 자유에 이르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리라는 것이 그의 예측이었다. 그는 노동을 통해 부분적으로 자유를 되산 노예는 새로 획득한 자유일을 허비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예가 일주일 전체를 자유일로 되살 무렵이 되면 노예는 노동을 내면화한 상태에 이를 것이었다. 그리하여 레몽의 구상에 따르면 노예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뒤에도 성실한 농업노동자로서 계속하여 과거 주인의 농장에서 일할 것이며 소출을 주인과 나누게

들에게 공정하고 인간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들은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형제들에게 조언했다.

99) Raimond, *Correspondance*, p. 81.

100) *Ibid.*, p. 80.

될 것이었다.¹⁰¹⁾

또한 레몽이 제시하는 노예들의 몸값을 살펴보아도 그의 노예제폐지론의 목적이 흑인들의 해방이 아니라 대농장 체제의 복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레몽의 방식에 따라 노예가 해방을 얻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레몽은 노예가 일주일 중 하루의 자유를 되사기 위해 남성은 5백 리브르, 여성은 4백 리브르를 주인에게 지불해야한다고 규정했지만 이 금액은 낮은 액수가 아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숙련기술이 없는 18세기 프랑스 노동자들 다수의 하루 임금은 1리브르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노예들은 1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노동해야만 하루를 되살 몸값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6일 전체를 되사기까지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다.

레몽은 노예들이 완전히 해방될 때 그들이 과거 주인의 채마밭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역시 그의 노예제폐지론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¹⁰²⁾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은 그들이 경작하던 토지의 소유자가 되기를 희망했고 자신들을 소규모 자작농(peasant proprietor)으로 상상했다.¹⁰³⁾ 레몽의 제안은 당시 노예반란에 직면한 식민지 엘리트들 중에서 보기 드물게 노예들의 토지 소유를 긍정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의 의도는 노예들의 열망대로 그들을 소규모 자작농으로 인정해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을 충실한 농업노동자로 만들고 농장주들의 재산을 보존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법률이 그들(노예들)에게 그들 주인의 변덕으로부터 독립된 작은 토지재산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재산과 식민지의

101) *Ibid.*, pp. 80-81.

102) 일반적으로 농장주들은 노예들의 생계를 위하여 그들에게 현물을 주기보다는 농장 변두리의 채마밭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땅에서 거둔 생산물로 노예들 스스로가 생계를 이어가게 했다. 레몽은 해방노예들에게 이 땅을 주자고 했던 것이다.

103) Cheney, *Cul de Sac*, p. 185; 일부 노예들은 대농장의 일부분을 그들의 것인 양 경작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토지를 탈취하기도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대 단위로 조직했고 각 집단은 토지를 할당받아 경작했으며 잉여 생산물은 판매했다. Fick, *Making*, pp. 168-169.

평온을 언제나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¹⁰⁴⁾

레몽은 해방노예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줄 재산을 주어야 대농장 체제가 안정되고 농장주들의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다. 재산을 가져본 적이 없는 흑인들은 타인의 재산을 존중할 줄 모르고 도둑질을 하는 습관이 있으므로 이를 고치기 위해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재산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⁰⁵⁾

레몽은 스스로 자신의 방안을 실현할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1792년 4월 4일의 법령이 통과된 이후, 입법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브리소와 그의 동료들은 법령을 집행하고 노예반란을 종식시킬 판무관단의 일원으로 레몽을 추천했으나 백인 농장주들의 반대로 레몽은 임명되지 못했다.¹⁰⁶⁾ 1793년에 6월에 브리소파의 세력이 꺾이자 레몽의 활동은 더욱 제한되었다. 산악파가 국민공회의 주도권을 잡은 이후 많은 브리소파 인사들이 처형되거나 투옥되었고, 브리소파와 교분이 두터웠던 레몽 역시 노예반란을 획책했다는 혐의로 그해 9월 체포되었다.

그러나 노예들을 농업노동자로 만들어 대농장을 유지한다는 레몽의 주장은 당시 식민지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판무관 송토낙스와 폴 브렐은 생도맹그에 파견된 이후 실제로 대농장 체제의 재건을 시도했다. 송토낙스는 해방 이후 흑인들은 대농장을 경작해야한다는 내용의 규율을 선포했다. 그는 흑인들이 열망하던 토지 소유권을 레몽보다도 철저히 부정했고 레몽이 그나마 허용했던 채마밭의 소유도 인정하지 않았다.¹⁰⁷⁾ 송토낙스가 구상한 해방노예들의 강제노동체제 하에서 해방노예들은 대농장에서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되었고 생산량의 4분의 1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소유주나 공동관리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않았다. 또한 엄격한 규율과 신체형이 부과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노예제를 상기시키는 것

104) Raimond, *Réflexions*, p. 32.

105) *Ibid.*, pp. 21, 32.

106) 농장주들은 식민지에 재산을 소유한 자가 판무관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워 레몽의 임명을 반대했다. Popkin, *You Are All Free*, p. 86.

107) Fick, "Emancipation in Haiti: From Plantation Labour to Peasant Proprietorship," *Slavery & Abolition* vol. 21 no. 2 (2000), pp. 20-21.

이었다.¹⁰⁸⁾

폴브렐 또한 주인들이 떠난 일부 대농장을 흑인들이 자신들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은 대농장의 해체와 다름없다며 우려했다. 대농장의 해체는 생도맹그가 프랑스에 더 이상 설탕을 수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렇게 된다면 생도맹그는 프랑스에게 버림받고 외세의 먹잇감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폴브렐은 1794년 2월 해방노예들을 위한 농업규율을 공포했다. 규율에 따르면 해방노예들은 주6일 대농장을 경작해야 했고 그 대신 대농장 수익의 3분의 1을 그들 몫으로 가지며 농장경영에도 의견을 낼 수 있었다. 만약 주5일 노동을 원할 경우 해방노예들의 몫은 수익의 6분의 1로 줄어들 것이었다.¹⁰⁹⁾ 그리고 폴브렐은 노예들이 대농장 수익의 일부분을 갖게 된 이상 그들에게는 경지가 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관무관들에 뒤이어 생도맹그의 실권을 쥐게 된 투생 루베르튀르도 다르지 않았다. 투생은 생도맹그가 여전히 프랑스의 식민지로서 본국에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흑인들이 자영농이 되는 소농 체제 하에서는 농작물 징수 및 운반 비용이 과다해져 수출경제의 복원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대농장 체제의 복구를 선택했다.¹¹⁰⁾ 투생이 제정한 엄격한 농업규율은 대농장 노동이 농장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애국적 기여라고 정의했고 흑인들에게 과거 주인의 대농장으로 귀환하여 노동할 의무를 부여했다.¹¹¹⁾ 1801년 2월에는 해방노예들의 채마밭 경작 관행까지도 금지되었다. 투생은 그 관행이 대농장 복원에 대한 위협이라고 간주했다.¹¹²⁾ 투생의 휘하에 있던 장군들 역시 투생과 의견을 같이했으며 이들은 이후 생도맹그가 독립한 이후에도 대농장 체제를 고수했다.¹¹³⁾

108) Cheney, *Cul de Sac*, pp. 182.

109) 주5일 노동도 가능했지만 그 경우 해방노예들의 몫은 3분의 1이 아닌 6분의 1로 줄어들었다.

110) Mats Lundahl,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War Economy of Saint Domingue, 1796 - 1802," *Slavery & Abolition* vol. 6 no. 2 (1985), pp. 126-32.

111) Cheney, *Cul de Sac*, pp. 187-188.

112) 듀보이스, 『아이티혁명사』, p. 372.

113) 투생 사후의 지도자 데살린과 앙리 크리스토프는 모두 대농장 체제를 고수하고

레몽을 포함한 식민지의 엘리트들은 그들에게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해보였다. 1791년의 노예반란과 1794년의 노예제 철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식민지의 대농장 경제를 넘어서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¹¹⁴⁾ 혁명 관료들은 대농장의 환금작물과 그 생산에 필수적인 예속 노동만이 전쟁의 재정적 요구에 대한 유일한 대응방안이라고 보았다. 흑인 지도자들은 강제 대농장 노동 체제로의 회귀를 약속했고, 버려진 대농장들을 장군들에게 전리품으로 분배했다. 구체제로의 회귀를 원했던 농장주들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노예 없는 노예 사회를 영속화하기를 추구했다. 그들은 흑인 노예들을 명목상 자유로운 농업노동자로 만들어 구체제와 놀랄 만큼 유사한 조건 하에서 똑같은 노동을 할 것을 강요했고 이는 흑인들의 영구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¹¹⁵⁾

그러나 대농장의 재건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의 노예제폐지론은 프랑스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1795년 5월 석방되었고, 그해 11월 총재정부는 레몽을 관무관으로 임명해 4인의 동료와 함께 그를 생도맹그로 파견했다. 생도맹그로 돌아온 레몽은 북부 대농장들의 재건비용을 추산할 것을 명령했고 해방노예들의 대농장 노동에 대한 보수를 성실하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¹¹⁶⁾ 또한 황폐해진 대농장의 재건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3년 간 해당 대농장의 용익권을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을 사용하려 하기도 했다.¹¹⁷⁾ 그러나 루베르튀르가 이미 생도

흑인들에게 엄격한 노동규율을 부과하려 했다. Sibylle Fischer, *Modernity Disavowed: Haiti and the Cultures of Slavery in the Age of Revolu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pp. 255-256.

114) 1793년 6-7월에 반란노예들이 에스파냐와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떠나려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자 관무관 송토낙스는 그해 8월에 생도맹그 북부에서 전면적 노예해방을 선포했다. 이는 10월에 서부와 남부로까지 확산되었으며 1794년 2월에는 본국의 국민공회가 정식으로 노예제 폐지를 선포했다.

115) Cheney, *Cul de Sac*, pp. 163-164.

116) Raimond et L.-F. Sonthonax, *La Commission du gouvernement français déléguée aux Isles sous le vent, aux commandans militaires de la partie du Nord de Saint-Domingue*, Le Cap, 1797.1.14.

117) Raimond, *Message : Extrait du registre des délibérations du Directoire exécutif, du 11 prairial, l'an cinquièm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Le Cap, 1797, p. 5.

맹그 전체의 권력자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레몽은 자신의 구상을 실현할 만한 실질적 권한을 지니지 못했다. 다른 관무관들 역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투쟁 및 그 휘하의 흑인 부하들과 계속하여 충돌했다. 이에 당혹감을 느낀 레몽은 자유로웠던 파리에서의 시절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1798년 파리로 다시 소환되었다.¹¹⁸⁾ 1799년에 이르러 보나파르트는 그를 다시 관무관에 임명했고 생도맹그의 농업 재건을 완수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렸다.¹¹⁹⁾ 명령을 받은 레몽은 1800년에 생도맹그에 도착하였으나 1801년에 황열병으로 사망하였다.

2. 레몽의 인종주의

레몽은 점진적 노예제폐지를 주장했으나 그가 제기했던 노예제폐지론의 내용과 그것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흑인들의 대의에 동조하였던 것이라기보다는 혁명적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생도맹그의 상황 속에서 그가 택할 수 있었던 불가피한 방향전환에 가까웠다. 물론 그는 노예들의 해방과 약간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고자 했다.¹²⁰⁾ 또한 그는 흑인들이 노동이라는 책무의 이행을 통해 자유를 획득한다는 생각을 채택함으로써 흑인들을 잠재적 시민으로 전제했다.¹²¹⁾ 그러나 그는 급진적인 변혁가가 아니었다. 그는 노예반란 이후 노예들이 사실상의 자유를 획득했던 생도맹그의 상황 속에서 자기 이익을 실현할 방법을 모색

118) Anna Julia Cooper, *L'Attitude de la France à l'égard de l'esclavage pendant la Révolution*. Edited and Translated into English by Frances Richardson Keller, *Slavery and the French and Haitian Revolutionist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6, p. 103.

119) Margaret B. Crosby-Arnold, "A Case of Hidden Genocide? Disintegration and Destruction of People of Color in Napoleonic Europe, 1799 - 1815," *Atlantic Studies* vol. 14 no. 3 (2017), p. 362.

120) Dubois, *A Colony of Citizens: Revolution and Slave Emancipation in the French Caribbean, 1789-1804*,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pp. 182-187.

121) Dubois, "'The Price of Liberty': Victor Hugues and the Administration of Freedom in Guadeloupe, 1794-1798,"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 56 no. 2 (Apr., 1999), pp. 374-375.

했다. 노예반란과 혁명이라는 상황의 복잡성 속에서 자유유색인 유산가로서의 그의 이익은 식민지 경제의 부활을 위해 노예들을 농업노동자로 대농장에 편입시킬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역설적으로 점진적 노예제폐지론, 흑인들의 개선가능성과 재산 소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노예들이 노동을 통해 자유를 부분적으로 되찾고 최종적으로는 농업노동자가 된다는 레몽의 구상은 흑인들에 대한 그의 인종주의적 사고를 잘 드러낸다. 그는 흑인들이 필연적으로 자유유색인과 구분되는 타락한 존재라고 전제했다. 이는 노예들의 자발적 갱생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기간 법률에 따른 감독(tutelle)을 통해 악덕을 제거하고 미덕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그는 노예들이 감독 하에서 노동함으로써 인격과 소유권에 대한 존중을 배우고 자유와 사회성의 상태로 이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¹²²⁾ 레몽은 노예제폐지론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근거로 하여 자유유색인과 흑인을 구분하고 그 사이의 우열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적 사고에 충실했던 인물이었다.¹²³⁾ 또한 그는 스스로 자유에 도달할 수 없는 수동적 존재인 흑인들을 자유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프랑스 본국이 규정하는 법률과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 본국에서 파견된 식민지의 관리들 뿐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그는 자유를 얻은 흑인들은 마땅히 프랑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면한 노동을 통해 식민지의 토양이 많은 소출을 내게 하는 것이었다.¹²⁴⁾

레몽의 인종주의적 사고가 지니는 함의는 그것을 인종문제에 대한 당대의 여러 견해들, 특히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가들의 그것들과 견주어 볼 때 더 분명히 드러난다. 이들은 모든 인간의 자연권을 주장했지만 역

122) Raimond, *Réflexions*, pp. 19-20.

123) 이와 관련하여 골드버그는 인종주의자들을 “공공연하게든 암묵적으로든 타자와 자신의 구분 혹은 동일시를 타자의 인종적 특징의 탓으로 돌리는 자들”로 정의하고 이 인종적 특징들은 생물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Goldberg, *Anatomy*, p. 296.

124) Raimond, *Réflexions*, pp. 26-27.

설적이게도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종주의적 사고를 동원했다.¹²⁵⁾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우선 백인은 흑인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우월하며 종 자체가 다르기에 흑인은 백인과 같아질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¹²⁶⁾ 다른 한편 흑인들을 위계의 최하위에 두면서도 모든 인간은 단일한 종이며 흑인들 또한 후천적 개선을 통해 완전해질 가능성(perfectibilit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그들을 문명화(civiliser)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¹²⁷⁾ 레몽의 인종주의는 전자와 후자에 모두 맞닿아 있었다. 그는 자유유색인이 생물학적으로 유럽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흑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전자와의 접점을 지니고 있었다. 동시에 후천적 요소인 재산과 미덕을 강조했으며 노동을 통한 흑인들의 개선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후자와의 유사성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백인과 흑인의 중간에 위치했던 자유유색인 레몽의 인종주의적 사고는 백인 사상가들의 주장에 맞닿아있으면서도 그와 다른 속성들을 지니고 있었다. 레몽의 인종주의는 백인들의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자신 역시 생물학적 요소를 근거로 자유유색인과 흑인을

125) 당시 대농장 경제의 발전은 노예노동 없이는 불가능했고, 계몽사상가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들이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들이 인간이더라도 야만인이므로 그들을 문명화시키기 위한 예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들의 주장은 이후 인종주의 이론가들의 전거가 되었고 19세기에는 이를 객관화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뒷받침되어 19세기 말의 우생학과 20세기의 인종 말살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 조셉 폰타나, 김원중 역, 『거울에 비친 유럽』, 서울: 새물결, 1999, pp. 226-230;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1748년 『법의 정신』에서 노예제가 자연권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특정한 맥락에서 노예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Dubois, “An Enslaved Enlightenment,” pp. 4-5.

126) 볼테르(Voltaire, 1694-1778)는 피부색의 차이가 인류의 다원적 기원을 의미한다고 믿었던 인류다원론자(polygéniste)였다. 그는 인류의 종들을 구별하는 원칙이 존재하며 이에 근거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Jean Ehrard, *Lumières et esclavage: L'Esclavage colonial et l'opinion publiqu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Bruxelles: André Versaille Éditeur, 2008, pp. 112-117.

127) *Ibid.*, pp. 106-112. 박물학자 뷔퐁(Buffon, 1707-1788)은 단일한 종인 인류가 지구 전체로 확산되면서 기후와 환경에 의해 각기 다르게 변한 것이라고 보았다. 뷔퐁은 온화한 기후에 사는 백인을 모범으로 두고 흑인들을 모범에서 가장 동떨어진 이들로 제시했지만, 흑인들이라고 해도 미덕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므로 흑인들에 대한 문명화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분하는 이중성을 특징으로 했다. 그는 백인들의 차별에 대항하여 자유 유색인이 단지 선조의 흑인 혈통 때문에 백인과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유롭게 태어난 자유유색인의 권리가 선조들 중 한 여성이 흑인 노예였다는 사실 때문에 억압되는 것은 인권선언의 모든 내용을 뒤엎는 일이며, 평등의 토대의 전복이자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었다.¹²⁸⁾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유유색인은 유럽인의 혈통을 적법하게(en légitimité)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이 흑인과 다르게 취급되고 정치적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791년 당시 식민지위원회가 백인 혈통이 일정 비율 이상인 자유유색인들에게만 권리를 인정해주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을 때 레몽은 백인 혈통을 지니고 세금을 납부하는 자유유색인들이라면 모두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⁹⁾ 레몽과 교체하며 그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 역시 자유유색인들의 인종적 기원을 근거로 그들을 옹호했다.¹³⁰⁾

또한 레몽의 인종주의적 사고는 일부 계몽사상가들이 제시한 흑인들의 개선 및 문명화 담론과도 유사했으나 이 역시 자유유색인의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형되었다. 계몽사상가들이 타락한 흑인들의 개선가능성을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레몽은 흑인들이 타자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음을 전제했다. 그는 프랑스가 법률을 통해 그들에게 이성과 습속(mœurs)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았다.¹³¹⁾ 그러나 계몽사상가들이 개선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완전하고 보편적인 인간은 결국 문명화된 백인에 한정되는 것이었던 반면 레몽은 완전함과 보편성의 모범이 되는 인간의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들과 달랐다. 그는 자유유색인은

128) Raimond, *Observations sur l'origine*, p. 25.

129) *Ibid.*, p. 20. 레몽은 그럴 경우 자유유색인 여성이 미래의 자식을 위해 자유유색인 남성과의 결혼보다 백인과의 내연관계를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도덕적 방탕함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자유유색인 가문 내에서도 세대가 거듭되면서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백인 혈통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문 내의 세대 간, 형제 간 분열을 증대시켜 식민지의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30) 레몽과 밀접하게 교류했던 쿠르낭(Cournand)과 그레구아르는 자유유색인이 태어날 때부터 백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그들을 옹호했고, 나아가 오히려 종의 교배를 통해 자유유색인이 더 개량된 존재들이라고 보기도 했다. 양희영, 「정치적 권리」, pp. 72-74.

131) Raimond, *Réflexions*, p. 31.

백인과 동등하게 문명화된 인간이므로 백인 뿐 아니라 자유유색인도 완전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모범임을 입증하려 했다. 그의 인종주의는 18세기 계몽사상에서 흘러나온 인종주의적 요소가 식민지의 자유유색인을 만나 변화해가는 독특한 단면이었다. 이는 비록 계몽사상이 유럽에서 발원했다고는 하나 그것이 유럽의 전유물이 아니라 카리브 해와 같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 독특하게 변모된 형태로 전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레몽은 18세기 말 식민지 자유유색인의 슬픈 자화상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는 일견 백인들의 인종적 편견과 맞서 싸우며 인종적 계서제에 치열하게 저항한 인물로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도 인종적 계서제를 수호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자유유색인이자 유산가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지녔던 그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받아들여 권리의 평등을 내세우며 백인들을 공격했지만 동시에 자유유색인의 미덕과 흑인의 야만성을 대조시키며 흑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았다. 또한 그는 노동을 통한 노예들의 점진적 해방을 주장했으나 이는 해방된 흑인들을 대농장에 종속된 농업노동자로 만들어 대농장을 부활시키려는 구상이 노예제폐지론의 외피를 쓰고 나온 것이었다. 이미 반란을 통해 스스로 자유를 쟁취하고 있었던 흑인들이 대농장으로의 복귀를 수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레몽은 자영농이 되고자 했던 흑인들의 열망의 크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레몽의 노예제폐지론은 이처럼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당시 한 자유유색인 유산가가 지니고 있었던 노예제 폐지 이후의 식민지 경제체제에 대한 구상을 보여주며 그것이 전제하는 독특한 인종주의적 사고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레몽은 자유유색인의 참정권 쟁취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인물이었다.¹³²⁾ 생물학적, 사회적 근거에 의존해 자유유색인과 흑인 사이에 뚜렷한 위계를 전제했던 그의 인종주의는 노예제와 대농장 경제라는 식민지 사회의 근간을 동요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유유색인의 사회적 상승은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핵심 논거이자 사고방식이었다. 따라서 자유유색인의 참정권을 필생의 목적으로 추구했던 그에게 인종주의의 폐기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1791년의 노예반란으로 생도맹그에도 혁명적 사건들이 전개되기 시작하자 레몽

132) 그는 “섭리(providence)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Raimond, *Rapport de Julien Raimond, commissaire délégué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aux isles sous le vent, au ministre de la Marine, Le Cap, 1797.8.14.*, pp. 16-17.

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점진적 노예제폐지론을 제시했고 해방노예들에게 채마밭의 소유권을 부여하자는 제안까지 내놓았으나 그 역시 본질적으로는 그의 인종주의적 사고의 또 다른 발로였던 것이다.

레몽의 인종주의적 사고는 식민지에 공고하게 뿌리내렸던 피부색의 위계질서가 새로이 등장한 자유유색인 유산가 계급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식민지 특유의 산물이었다. 레몽은 “계급과 인종의 교차를 연구하는 실험실(a laboratory for studying the interplay of class and race)”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티 혁명 속에서 그 교차점에 서 있었다.¹³³⁾ 그는 확정되지 않았던 당시의 인종, 인종주의 개념이 계급적 범주와 복잡하게 뒤엉켜있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인물인 것이다. 나아가 이는 인종주의라는 개념이 대서양 양안에 걸친 혁명의 시간 속에서 변형되는 한 일면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 형성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33) Geggus, *Haitian Revolutionary Studies*, p. 94.

참 고 문 헌

■ 사료

(1) 레몽의 저작

Raimond, Julien. *Observations adressés à l'Assemblée Nationale, par un député des colons américains*. Paris, 1789.

_____. *Réclamations adressées à l'Assemblée Nationale, par des personnes de couleur, propriétaires & cultivateurs de la colonie française de Saint-Domingue*. Paris, 1790.

_____. *Observations sur l'origine et le progrès du préjugé des colons blancs contre les hommes de couleur*. Paris: Chez Belin, 1791.1.26.

_____. *Réponse aux considérations de M. Moreau, dit Saint-Méry sur les colonies*. Paris: Imprimerie du Patriote François, 1791.5.

_____. *Lettre des commissaires des citoyens de couleur en France, à leurs frères et commettans dans les isles françaises*. Paris, 1791.6.10.

_____. *Véritable origine des troubles de S.-Domingue, et des différentes causes qui les ont produits*. Paris: Chez Desenne, 1792.

_____. *Lettre au citoyen D***, député à la convention nationale, par Julien Raymond, colon de Saint-Domingue, sur l'état des divers partis de cette colonie, et sur le caractère des déportés*. Paris, 1793.2.24.

_____. *Mémoire sur les causes des troubles et des*

désastres de la colonie de Saint-Domingue. Paris: Imprimerie du Cercle Sociale, 1793.

_____. *Réflexions sur les véritables causes des troubles et des désastres de nos colonies, notamment sur ceux de Saint-Domingue; Avec les moyens à employer pour préserver cette colonie d'une ruine totale*. Paris, 1793.

_____. *Lettres de J. Raimond, à ses frères les hommes de couleur*. Paris: Imprimerie du Cercle Sociale, 1794.

_____. *Correspondance de Julien Raimond, avec ses frères, de Saint-Domingue, et les pièces qui lui ont été adressées par eux*. Paris: Imprimerie du Cercle Social, 1794.

_____. *Lettre d'un citoyen, détenu pendant quatorze mois, et traduit au Tribunal révolutionnaire, au citoyen C. B***, représentant du peuple, en réponse sur une questions importante*. Paris: Imprimerie de l'Union, 1795.

_____. *Message : Extrait du registre des délibérations du Directoire exécutif, du 11 prairial, l'an cinquième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Le Cap, 1797.5.30.

_____. *Rapport de Julien Raimond, commissaire délégué par le gouvernement français aux isles sous le vent, au ministre de la Marine*. Le Cap, 1797.8.14.

Raimond, Julien et Léger-Félicité Sonthonax. *La Commission du gouvernement français déléguée aux Isles sous le vent, aux commandans militaires de la partie du Nord de Saint-Domingue*. Le Cap, 1797.1.14.

(2) 기타

Le Code noir, 1685.

Cahier, contenant les plaintes, doléances & réclamations des citoyens-libres & propriétaires de couleur, des isles & colonies françoises, 1789

Décret de l'Assemblée nationale concernant les colonies: suivis d'une instruction pour les Isles de Saint-Domingue, la Tortue, la Gonave et l'Isle-à-Vaches. Du lundi 8 mars 1790.

Madiou, Thomas. *Histoire d'Haïti* tome. 1. Port-au-Prince: Imprimerie de J. Courtois, 1847.

Ardouin, Beaubrun. *Étude sur l'histoire d'Haïti* tome. 2 et 3. Paris: Dezobry et E. Magdeleine, Lib.-éditeurs, 1853.

■ 연구서

한국서양사학회 편. 『서양문명과 인종주의』. 서울: 지식산업사, 2002.

Bénot, Yves.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 1789-1794*. Paris: La Decouverte, 1987.

Braudel, Fernand et Ernest Labrousse. dir., *Histoire économique et sociale de la France* tome. ii.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0.

Cheney, Paul. *Cul de Sac: Patrimony, Capitalism, and Slavery in French Saint-Domingu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7.

Cooper, Anna Julia. *L'Attitude de la France à l'égard de l'esclavage pendant la Révolution*. Edited and Translated into English by Frances Richardson Keller. *Slavery and the French and Haitian Revolutionist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2006.

Dubois, Laurent. *A Colony of Citizens : Revolution and Slave*

- Emancipation in the French Caribbean, 1789-1804*.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 _____. *Avengers of the New World: The Story of the Haitian Revolution*.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박윤덕 역, 『아이티혁명사』, 서울: 삼천리, 2014.
- _____. *Haiti: The Aftershocks of History*. New York: Picador, 2012.
- Ehrard, Jean. *Lumières et esclavage: L'Esclavage colonial et l'opinion publique en France au XVIIIe siècle*. Bruxelles: André Versaille Éditeur, 2008.
- Fick, Carolyn E.. *The Making of Haiti: The Saint-Domingue Revolution from Below*. Knoxville: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0.
- Fischer, Sibylle. *Modernity Disavowed: Haiti and the Cultures of Slavery in the Age of Revolu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4,
- Fontana, Josep. *Europa ante el espejo*. Barcelona: Crítica, 1994. 김원중 역, 『거울에 비친 유럽』, 서울: 새물결, 1999.
- Garrigus, John D.. *Before Haiti: Race and Citizenship in French Saint-Domingu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6.
- _____. "Saint-Domingue's Free People of Color and the Tools of Revolution." in *The World of the Haitian Revolution*. Edited by David Patrick Geggus and Norman Fiering.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9.
- _____. "Julien Raimond(1744-1801): Planter, Revolutionary, and Free Man of Color in Saint-Domingue." In *The Human Tradition in the Atlantic World, 1500-1850*. Edited by Karen Racine and Beatriz G. Mamigonian. Lanham, MD:

- Rowman& Littlefield, 2010.
- Gauthier, Florence. *L'aristocratie de l'épiderme: Le combat de la Société des Citoyens de Couleur, 1789-1791*. Paris: CNRS, 2007.
- Geggus, David P.. *Haitian Revolutionary Studi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2.
- Goldberg, David Theo. ed., *Anatomy of Rac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0.
- James. C. L. R..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2nd Edition. New York: Vintage Books, 1962. 우태정 역, 『블랙 자코뱅』, 서울: 필맥, 2007.
- McCloy, Shelby T. *The Negro in France*. Lexington: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61.
- Maurel, Blanche. *Cahiers de doléances de la colonie de Saint-Dominique pour les États généraux de 1789*. Paris: Ernest Leroux, 1933.
- Outin-Bastide, Caroline et Philippe Steiner. *Calcul et Morale: Coûts de l'esclavage et valeur de l'émancipation(XVIIIe-XIXe siècle)*. Paris: Édition Albin Michel, 2015.
- Popkin, Jeremy D.. *Facing Racial Revolu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 Sala-Molins, Louis. *Les Misères des Lumières: Sous la raison, l'outrage...* Paris: Édition Robert Laffont, 1992.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an Introduction by John Conteh-Morgan. *Dark Side of the Light: Slavery and the French Enlightenmen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6.
- Serna, Pierre et al.. *Pour quoi faire la Révolution*. Marseille: Agone, 2012. 김민철 · 김민호 역, 『무엇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가』, 서울: 두더지, 2013.

■ 연구논문

- 양희영. 「프랑스혁명과 몰라토의 정치적 권리」. 『프랑스사연구』 제25권 (2011): 59-85.
- 최갑수. 「1789년의 「인권선언」 과 혁명기의 담론」. 『프랑스사연구』 제4권 (2001): 5-43.
- Cook, Mercer. “Julien Raimond.” *The Journal of Negro History* vol. 26 no. 2 (April 1941): 139-70.
- Crosby-Arnold, Margaret B.. “A Case of Hidden Genocide? Disintegration and Destruction of People of Color in Napoleonic Europe, 1799 - 1815.” *Atlantic Studies* vol. 14 no. 3 (2017): 354-81.
- Debien, Gabriel. “Gens de couleur libres et colons de Saint-Domingue devant la Constituante(1789 - mars 1790).” *Revue d'histoire de l'Amérique française* vol. 4 n° 2 (1950): 211-32.
- Dubois, Laurent. ““The Price of Liberty”: Victor Hugues and the Administration of Freedom in Guadeloupe, 1794-1798.”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 56 no. 2 (Apr., 1999): 363-392.
- _____. “An enslaved Enlightenment: Rethinking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French Atlantic.” *Social History* vol. 31 no. 1 (2006): 1-14.
- Fick, Carolyn E.. “Emancipation in Haiti: From Plantation Labour to Peasant Proprietorship.” *Slavery & Abolition* vol. 21 no. 2 (2000): 11-40.
- Garrigus, John D.. “Blue and Brown: Contraband Indigo and the Rise of a Free Colored Planter Class in French Saint-Domingue.” *The Americas* vol. 50 no. 2 (1993): 233-63.
- _____. “Colour, Class and Identity on the Eve of the Haitian Revolution: Saint-Domingue’s Free Coloured Elite as

Colons américains.” *Slavery & Abolition* vol. 17 no. 1 (1996): 20-43.

_____ . “Opportunist or Patriot? Julien Raimond(1744-1801) and the Haitian Revolution.” *Slavery and Abolition* vol. 28 no. 1 (2007): 20-43.

Lundahl, Mat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War Economy of Saint Domingue, 1796 - 1802.” *Slavery & Abolition* vol. 6 no. 2 (1985): 122-38.

Nemours, Luc. “Julien Raimond le chef des gens de couleur et sa famille.” *Annales historique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no. 123 (1951): 257-62.

Quinney, Valerie. “The Problem of Civil Rights for Free Men of Color in the Early French Revolution.”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 7 no. 4 (1972): 544-57.

Rizvi, Fazal. “Stuart Hall on Racism and Importance of Diasporic Thinking.”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vol. 35 no. 2 (2015): 264-274.

Rogers, Dominique. “De l’origine du préjugé de couleur en Haïti.” *Outre-mers* vol. 90 n° 340 (2003): 83-101.

Stein, Robert. “The Free Men of Colour and the Revolution in the Saint-Domingue, 1789-1792.” *Social History* vol. 14 no. 27 (May 1981): 7-28.

Résumé

Le racisme de Julien Raimond dans la Révolution française:

Mouvement pour les droits politiques des gens de couleur libres et abolitionisme

Jungki Min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objectif de ce travail est d'analyser la pensée raciste de Julien Raimond, en particulier son mouvement pour les droits politiques des gens de couleur libres et son abolitionnisme. Fils d'un père blanc et d'une mère mulâtresse, Raimond est né libre en 1744 dans la colonie française de Saint-Domingue. En tant que représentant des gens de couleur libres, Raimond a lancé un mouvement pour les droits politiques en opposition à la discrimination contre les gens de couleur libres. Cependant, il était indifférent aux droits des esclaves noirs et croyait que les gens de couleur libres étaient par essence supérieures aux noirs bien qu'ils soient également d'ascendance africaine. Pourquoi Raimond, qui a souffert sous la hiérarchie raciale de la colonie, a-t-il adhéré à une façon de pensée raciste? En ce qui

concerne cette question, cette thèse examine en profondeur les écrits et les actes de Raimond entre 1789 et 1797, essayant de découvrir sa pensée raciste unique et sa signification historique.

Souffrant d'une discrimination contre les gens de couleur libres, Raimond a d'abord tenté d'en découvrir l'origine. Selon ses explications, la hiérarchie raciale s'est renforcée dans les années 1760 lorsqu'un certain nombre de blancs appauvris se sont installés à Saint-Domingue. Selon Raimond, la relation entre les gens de couleur libres et les blancs dans la colonie a été caractérisée par la domination de l'hostilité et la haine. La disproportion économique financière entre les gens de couleur libres et la majorité des blancs a été la cause prédominante pour plaidoyer les autorités à promulguer des nouvelles lois reconnaissant la supériorité des blancs. Toutefois, Raimond a négligé le problème de l'esclavage considéré comme cause cruciale de la hiérarchie raciale. Cette position s'explique par le fait qu'il a été victime de la hiérarchie raciale en tant qu'homme de couleur mais aussi bénéficiaire de l'esclavage en tant que propriétaire d'esclaves. Raimond a critiqué et combattu sévèrement les « préjugés de couleur » par les blancs ; bien qu'il ait soutenu les propos du travail des esclaves.

Raimond s'est engagé à réclamer pour les droits politiques des gens de couleur libres en 1782. Il s'est embarqué pour la France et a rédigé plusieurs rapports et mémoires en 1784. Quand la révolution a été déclenchée en 1789, il a invoqué l'idéologie révolutionnaire pour défendre sa position. Il a souligné que les préjugés raciaux des blancs empêchaient la propagation des idéaux et les revendications de la révolution au delà de la France métropolitaine. En d'autres termes, Raimond a évoqué pour la première fois le problème de la frontière raciale de l'idéologie révolutionnaire. Son argument a eu un impact

sur les Girondins, qui ont dominé l'Assemblée législative à cette époque, et a contribué à l'adoption du décret du 4 avril 1792, reconnaissant l'égalité de droit de tous les gens de couleur libres tout en excluant les noirs de jouir ou bénéficier de ce droit. Ses contributions et propos ont créé, d'ores et déjà, un autre préjugé racial à l'égard des noirs.

Après la promulgation des lois reconnaissant les droits politiques pour les gens de couleur libres, le gouvernement français a tenté de réprimer la révolte et l'insurrection des esclaves survenue en 1791 et d'établir l'ordre social dans la colonie. À cet égard, Raimond a présenté un plan d'abolitionnisme progressif dans lequel les esclaves pourraient « racheter » leur liberté en partie. Il a proposé qu'un esclave puisse jouir d'une journée de liberté par semaine lorsqu'il donnait un sixième de son prix à son maître, car il travaillait six jours par semaine. Raimond a également avancé que l'esclave utiliserait son journée de liberté pour travailler davantage, afin qu'il puisse racheter plus de journées de liberté. Progressivement l'esclave pourrait payer la totalité de son prix et récupérer sa liberté. Apparemment, cela semblait être l'abolition de l'esclavage, mais pour Raimond, la véritable intention de cette proposition était d'infléchir sa position personnelle du mouvement estimant restreindre la révolution aux hommes de couleur et écartant les noirs. En tant que planteur qui possédait des plantations et des esclaves, il voulait revigorer le système de plantation qui avait été ruiné par la révolte des esclaves. Au cours de la révolte pendant laquelle les esclaves prétendaient leur liberté, Raimond essayait de trouver une mesure susceptible de ramener les ex-esclaves vers les anciennes plantations de leurs maîtres. Pour ce faire, il a ajouté une disposition dans sa proposition selon laquelle les esclaves ne pourraient payer les sommes dues qu'en

contre partie de l'argent qu'ils auraient gagné par leur travail. Il prévoyait que les esclaves considéreraient le travail comme le seul moyen d'obtenir la liberté, et continueraient volontairement à travailler dans les plantations de leurs anciens maîtres comme ouvriers agricoles même après qu'ils soient devenus entièrement libres.

Raimond, à travers ses propositions, a scellé la pensée raciste envers les noirs, et ses traits distincts sont bien observés comme celles des opinions contemporaines sur la race et plus particulièrement celles des penseurs des Lumières de la France du XVIII^e siècle. En premier lieu, la pensée raciste de Raimond a été marquée par un dualisme quasi contradictoire. En effet, Il a critiqué les blancs d'avoir imposé des mesures et des pratiques de nature ségrégationnistes sur la base de facteurs biologiques contre les gens de couleur libres, et d'autre part il a tracé des limites entre les gens de couleur libres et les noirs sur la même base de facteurs biologiques. En deuxième lieu, Raimond croyait que les noirs dégénérés pouvaient être menés à la liberté si leurs attitudes avaient été changées par les valeurs du travail qu'ils avaient acquis. Sa conviction semblait à celle des penseurs des Lumières dans leurs perceptions de la perfectibilité et la civilisation des noirs. Cependant, le modèle de perfection et de civilisation que les penseurs des Lumières ont discuté était limité seulement aux hommes blancs civilisés, alors que Raimond pensait que les gens de couleur libres étaient aussi civilisés comme les blancs. La pensée raciste de Raimond reflète la société coloniale qui se formait au moment où la hiérarchie des couleurs était en conflit avec la nouvelle classe de propriétaires de couleur libres. Saint-Domingue dans l'ère révolutionnaire était comme un «laboratoire pour expérimenter le croisement de la classe et de la race», et Raimond était au cœur même de ce débat. De plus, il

montre comment les notions flexibles de race et de racisme à la fin du XVIIIe siècle étaient liées avec d'autres facteurs à savoir la classe et le fossé économique.

keywords : Julien Raimond, racisme, esclavage, Saint-Domingue, Revolution française, Revolution haïtienne

Student Number : 2016-20068